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공동연구원: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연구보조원: 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참여가 정책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부터 시행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소년참여는 청소년 스스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관하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청소년수련 시설과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청소년지도자의 노력으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와 2012년도에는 청소년참여 부문의 UN공공행정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의 역할정립,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위원들의 대표성,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낮은 실질적인 정책반영도, 안정적인 추진기구의 미비, 낮은 예산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한 이론적 조망, 우리나라 청소년참여기구 현황 분석,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 일반청소년 및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에 대한 요구조사 및 청소년참여 관련 학계, 현장, 행정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3가지 전략과 15개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로 불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진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청소년 분야 학자들과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조망, 국외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었다.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참여기구 구성원들 간의 토론 활성화,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국가 및 재단의 예산지원, 선배조직의 활용 등이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실제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을 더 선호하였다. 한편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활동 후 자신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은 시간부족, 정보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보고 있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부처 간 이해도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운영 측면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기계발과 청소년권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이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하였고,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 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이었다. 역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이 보통수준이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의 문제점으로는 시간 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었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참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기대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영역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 결성 및 연계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영역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제도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참여기구, 국외 청소년기구 사례, 활성화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며, 일반청소년,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대상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문헌분석
-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분석
- 전국 중고등학교 일반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요구조사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요구조사
-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3. 주요결과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

-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유, 영향력을 통한 변화 도모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연구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 미비,

대표성 문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청소년들의 의견·자문내용의 낮은 반영률, 안정적 운영전략 부재, 안정적인 추진기구의 미비, 적은 예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미비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2)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의 시사점

-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청소년참여를 장려함.
-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 유럽 청소년포럼 및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축제의 장으로서 특정 이슈에 대해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 전문성이 있는 선배들을 발굴하여 멘토로 활용, 고위 정치 및 행정지도자들과의 소통기회 제공, 공식적인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 참여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탐구, 분야별 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논의와 참여 등의 시사점을 이끌어 냄.

3) 일반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 참여활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저해요인을 파악하며,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 청소년 참여활동 저해요인,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경험,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음.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활동을 더욱 선호함.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지원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청소년 참여활동 후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활동 이후 자신에게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응답함.

-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시간 부족,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에 있어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따라가는 형태 또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함.
-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입시 제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4)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참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계,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의의이며,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해도가 다른 것,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로 인식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는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부족,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 부처(교육부 등)와 연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함.
-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 파트너십이 부족,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이 부족, 학업 병행으로 인해 참여활동의 어려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을 문제로 인식
- 청소년특별회의는 다소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는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점,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보장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 청소년특별회의의 발전방향으로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범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가 필요하고,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청소년운영 위원회는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훈련확대가 중요하다고 봄.

- 종합적으로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5)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홍보 및 게시판 공고 등의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참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과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참여기구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함. 주로 하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 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은 보통 수준이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함.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동 후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 공부시간의 부족과 같은 부정적인 변화를 보임.
-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음.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측면에서는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부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한계인 것으로 인식함.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청소년들은 학업 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전환과 홍보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참여기구에 있어서는 역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청소년참여기구활동의 효과를 리더십수준으로 검증한 결과 상대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많이 한 청소년들과 높은 성취기대수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의 리더십능력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

4. 정책제언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 5가지로 설정함.
-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유형화하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영역을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의 3가지로 설정함.
 -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 결성 및 연계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 5가지 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제도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등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
- 이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 큰 방향의 전략,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었으며, 향후 후속연구 수행이나 정책추진을 위하여 세부 추진과제 및 매뉴얼 개발, 구체적인 예산확정 및 예산확보 방안 제시, 다양한 정책추진 근거 확보 등이 필요함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 2 장 이론적 조망	7
1. 청소년참여기구의 개념과 의의	9
2.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0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	21
제 3 장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	25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	27
2.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	37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과 사례의 시사점	46
제 4 장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51
1. 표본설계	53
2. 조사도구 개발	66
3. 분석방법	70
4. 분석결과	70
5. 소결	81
제 5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전문가의견조사	83
1. 전문가의견조사 개요	85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86
3. 소결	97

제 6 장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 대상 설문조사	99
1. 조사개요	101
2. 조사결과	106
3. 소결	125
제 7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127
1.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기본방향	129
2.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정책 영역과 과제	131
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세부정책과제	132
제 8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159
1. 요약 및 결론	161
2. 제언	165
참고문헌	167
부 록	175
1. 일반청소년대상 설문조사지(통합조사)	
2. 전문가의견 조사지 1차	
3. 전문가의견 조사지 2차	
4.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설문 조사지	

표 목차

<표 II-1> 성별·교급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구성현황	12
<표 II-2> 지역별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구성현황	12
<표 II-3>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12
<표 II-4>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소수·설치율	15
<표 II-5> 청소년운영위원회 연도별 운영실적	18
<표 III-1> 청소년참여기구 외국사례 목록	37
<표 IV-1>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54
<표 IV-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54
<표 IV-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55
<표 IV-4>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55
<표 IV-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56
<표 IV-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56
<표 IV-7>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57
<표 IV-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57
<표 IV-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59
<표 IV-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60
<표 IV-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60
<표 IV-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61
<표 IV-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61
<표 IV-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0
<표 IV-15>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71
<표 IV-16>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	72
<표 IV-17> 청소년참여기구 의견반영 정도	72
<표 IV-18>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수준	73
<표 IV-19> 청소년 참여활동 만족도	74
<표 IV-20>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경로	74

<표 IV-21>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성취기대수준	75
<표 IV-22>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성 정도	76
<표 IV-23> 청소년 참여활동 후 긍정적 변화	76
<표 IV-24> 청소년 참여활동 후 부정적 변화	77
<표 IV-25>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정도	78
<표 IV-26>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참여활동	78
<표 IV-27>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이유	79
<표 IV-28>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수준	80
<표 IV-29> 청소년 참여활동 애로사항	80
<표 IV-30>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81
<표 V-1>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86
<표 V-2> 현재 청소년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87
<표 V-3> 참여기구 운영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88
<표 V-4>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89
<표 V-5>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90
<표 V-6>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90
<표 V-7>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91
<표 V-8>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92
<표 V-9>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	93
<표 V-10>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의 중요도	94
<표 V-11>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의 중요도	95
<표 V-12>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방향의 중요도	95
<표 V-13>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96
<표 V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6
<표 VI-2>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정도	107
<표 VI-3>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경로	108

<표 VI-4> 청소년참여기구별 활동 참여 동기	109
<표 VI-5> 참여기구별 성취기대수준 비교	109
<표 VI-6> 청소년참여기구의 참여기간	110
<표 VI-7>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횟수	110
<표 VI-8>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 및 활동 시간	111
<표 VI-9> 청소년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112
<표 VI-10> 청소년참여기구에서 담당하는 활동	113
<표 VI-11>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자, 부모의 지원	114
<표 VI-12> 청소년 참여수준	114
<표 VI-13>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15
<표 VI-14>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6
<표 VI-15> 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정도 비교	117
<표 VI-16> 청소년참여기구별 활동 후 긍정적 변화	117
<표 VI-17> 청소년참여기구별 활동 후 부정적 변화	118
<표 VI-18> 청소년참여 기구별 참여 시 어려움	119
<표 VI-19>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120
<표 VI-20>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의 측면	121
<표 VI-21>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122
<표 VI-22> 성별에 따른 청소년 참여효과	123
<표 VI-23> 개인변인, 참여관련변인, 자아 존중감, 리더십능력간의 상관관계	124
<표 VI-24> 개인변인, 참여관련변인 및 자아 존중감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124
<표 VII-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150
<표 VII-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51
<표 VII-3> 서울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152

그림 목차

【그림 VII-1】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기본 방향	130
【그림 VII-2】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131
【그림 VII-3】 청소년특별회의 구성도	133
【그림 VII-4】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도	13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사회는 자신의 생명선을 자르는 것이며, 그 사회는 출혈과
다로 죽을 운명에 놓여진다.”¹⁾**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청소년담당장관 세계회의, 리스본, 1998)

최근 청소년참여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UN, UNESC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은 청소년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우수한 역량을 가졌으며, 사회발전에 책임을 지닌 사회구성원 및 사회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와 첨단산업 등의 생산과 소비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이민희 외, 2005).

최근 인터넷 사용과 함께 청소년들이 사회전반의 문제나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거나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라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되어 청소년의 권리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자기결정의 주체로서의 참여를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참여가 본격적으로 정책화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8년부터 시행된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계획 속에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해 왔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1) 청소년위원회(2005)의 ‘청소년 참여의 현황, 문제점 및 운영방안 연구’ 머리말에서 재인용.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과정(계획, 실행 및 평가과정)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최창욱·조혜영, 2006). 즉,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조정, 실행, 평가의 전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관여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고, 정책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 지자체, 청소년기관·시설·단체의 공식적 의사결정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자치)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의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하여 청소년 친화적(youth friendly)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정책 목표 달성의 순응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의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분야별 사업으로 제시하면서 같은 해 문화관광부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9년 제주도, 2000년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여 왔다. 한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에 지원하였던 청소년참여위원회와는 별도로 전국 단위의 범부처적 성격을 띠는 청소년참여기구 설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설정, 추진, 점검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2004년 시범개최하고,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책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과 각종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개진을 위하여 각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을 통해 권장하고,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여성가족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총 244개 자치단체 중에서 194개소(설치율 79.5%)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총 305개소가 운영되는 등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본래 청소년참여기구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 기획·실행·평가 과정에서의 참여확대 및 모니터링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들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청소년참여기구는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의 문제,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위원들의 대표성 문제,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기

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자문내용의 반영률 문제, 안정적 운영전략의 부재, 안정적인 추진기구(사무국 등)의 미비, 낮은 예산,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및 인센티브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최창욱·김승경, 2010; 최창욱·조혜영, 2006; 청소년위원회, 2005). 또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로드맵 부족으로 정책의 적절한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앞서 제기한 다양한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한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의 바람직한 모델 개발을 위해 이러한 관련 연구수행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주무부처의 요구와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고유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이론적 조망, 둘째, 국외 청소년참여기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셋째,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 일반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통한 현황과 요구 분석, 넷째, 정책 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을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①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이론적 조망, ② 청소년참여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사례 분석, ③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현황 및 요구 진단(일반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④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등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이론적 조망

관련 문헌검토를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이론적 조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참여 및 청소년참여기구의 개념과 의의,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분석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 동향을 탐색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외 사례는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들에 대한 인터넷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현황 및 요구 진단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현황과 요구 진단을 실시하였다. 요구 진단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전국의 일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현황과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학계, 정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현황과 요구 진단을 위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현황과 요구 진단을 실시하였다.

4)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이론적 조망, 사례분석, 현황 및 요구진단을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설문조사(일반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위원) 등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에 소개되어 있다.

제 2 장

이론적 조망

1. 청소년참여기구의 개념과 의의
2.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제 2 장 이론적 조망

1. 청소년참여기구의 개념과 의의

참여(participation)는 대체로 의사결정 관여 및 개입, 유권자로서의 참여, 경제활동의 혜택 부여,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된다. 청소년참여도 이러한 참여의 개념을 포함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다. 대체로 청소년참여를 연구한 학자들(Winter, 1997; Hart, 1997; Council of Europe, 1992)의 청소년참여 개념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된 개념들을 뽑아 볼 수 있다. 첫째는 능동성이다. 이는 참여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영향력 행사를 통한 변화 도출이다. 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기관, 시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는 참여는 주로 의사결정의 공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는 것, 영향력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겠다.

Checkoway(1999)는 청소년참여의 유용성을 개인 발달(personal development),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지역 사회개발(communitary development)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하였다. 개인 발달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획득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력과 능동적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발은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조직 내의 의사결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집단행동에 기여할 수 있으며,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개발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지역 사회활동(특히 봉사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은 독립적인 인격체이자 우수한 역량을 지닌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며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있다(최창욱·조혜영, 2006). UN 등 국제기구는 주기적으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인권과 참여 상황을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최창욱·조혜영, 2006).

1998년 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 참여가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최창욱·조혜영, 2006). 이 시기 이후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모니터링, 청소년기관·시설·단체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청소년참여기구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의 초창기 운영에 있어서는 각 청소년참여기구가 소속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기관·시설·단체의 영향력이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위원들의 그것보다 컸으나, 차츰 청소년위원들이 주도하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이 지원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주도로 시작된 우리나라 청소년참여기구는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로 불리기도 하였다.

2013년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적이며 범부처적인 성격을 갖는 청소년참여기구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2.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1)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제15조에 의하여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정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정책 과정에 청소년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촉진한다²⁾).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도 시범회의 후 2005년도에는 제1회, 2013년도에는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가 11월 22일 개최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대표로 구성되며, 중앙과 지역 청소년특별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16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지역 청소년특별회의가 되며, 이들이 모여 중앙청소년특별회의가 되었다. 2013년부터는 세종시가 새롭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현황은 2012년을 기준으로 성별, 교급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144명(40%), 여자청소년이 218명(60%)으로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316명(8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24명(7%), 중학생 18명(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성가족부와 16개 시도별로 20명 내외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 청소년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 대상)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 관련 단체·시설·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대상을 정할 때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지역회의를 개최한 후에 전국 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의제의 통지)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표 II-1 성별·교급별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 구성현황

구 분	중	고	대	기 타	소 계
남	7	121	14	2	144(40%)
여	11	195	10	2	218(60%)
총 계	18(5%)	316(87%)	24(7%)	4(1%)	362(100%)

*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결과보고서(p. 9)'

표 II-2 지역별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 구성현황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4	22	20	18	20	20	20	19	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	23	10	19	26	28	28	15	362

*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3).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결과보고서(p. 9)'

청소년특별회의는 각 지역별로 청소년의 활동과 보호, 복지 관련 지역 예비의제를 선정하고 이 예비의제를 바탕으로 중앙의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을 통해 당해의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의제연구를 통하여 세부정책과제를 조율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제안한다.

표 II-3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연도	의 제 및 과 제	수용률
2004 (시범)	○ 정책의제: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정책의제: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연도	의 제 및 과 제	수용률
2006	○ 정책의제: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 정책의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 정책의제: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2009	○ 정책의제: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	○ 정책의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4%
2011	○ 정책의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정책의제: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체험활동 여건 조성 등 3개영역 89개 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정책의제: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등 3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

* 출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내용 추가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은 청소년인권과 참여 13개 과제, 2005년 제1회는 ‘청소년참여기반확대’ 35개 과제, 2006년 제2회는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37개 과제, 2007년 제3회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18개 과제, 2008년 제4회는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35개 과제, 2009년 제5회는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20개 과제, 2010년 제6회는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53개 과제, 2011년 제7회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41개 과제, 2012년 제8회는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89개 과제, 2013년 제9회는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등의 정책의제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하였다.

2005년부터 추진된 239개 정책과제의 모니터링 결과 207개 과제가 현재 정부에서 이행 중이거나

나 이행함으로써 86.6%의 이행 성과를 보였다. 청소년특별회의 연도별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와 정책수용률은 <표 II-3>과 같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가 관련 부처의 정책대안 창출 및 추진으로 이어져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특별회의를 계기로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최창욱·김승경, 2010).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의 대표성 문제, 정책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부족, 추진 일정의 가변성, 대국민 홍보 부족, 구성원의 명확한 역할 정립 미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여성가족부, 2013; 최창욱·김승경, 2010; 최창욱·조혜영, 2006; 청소년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추진단, 2005; 청소년위원회, 2005).

2)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자문 및 건의와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을 시행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³⁾. 즉,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 대상인 청소년이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사례별 차이는 있으나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및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청소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워크숍

3) 청소년기본법 관련조항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 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최와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활성화된 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을 기획·실행하기도 하였다.(최창욱·김승경, 2010; 최창욱·조혜영, 2006).

2013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내부자료(여성가족부, 2013)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하여 세종시를 신규로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참여 위원회와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178개 등 총 195개에 달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칭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명칭을 권장하고 있다. 위원회별 규모는 10~30명이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선발된 약 4,056여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총 194개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약 79.5%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에 있어서는 지역 간에 격차가 있는데 이는 <표 II-4>에 나타나 있다.

표 II-4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소수·설치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자치 단체수	26	17	9	11	6	6	6	1	32	19	13	16	15	23	24	19	1	244
운영 개소수	12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194
설치율 (%)	46.2	17.6	33.3	90.9	33.3	33.3	100	100	100	100	38.5	100	100	100	100	105	100	79.5

※ 자료: 여성가족부(2003), 2013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보고,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13년 서울 강동구,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국고 미지원, 지방비 6개소 운영중)

※ '14년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경남 1개소 추가 설치(예정)

※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에 따라 기존 참여위 미폐지

2012년 현재 운영예산으로 16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시군구에는 3백만 원(국비 1.5백만 원, 지방비 1.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개선발과 단체 추천 등을 통하여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참여위원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선발 및 운영 방식이 난립하여 표준화된 운영모델의 없다는 점, 의견제시 또는 자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역할정립의 모호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최창욱·김승경, 2010; 최창욱·조혜영, 2006).

3)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수련시설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

4) 청소년활동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조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친화적인 시설이 되게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시설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하며, 1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지역 사회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를 기조로 하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문화관광부, 2008)의 시작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는 5개 중점 추진과제⁵⁾를 설정하여 이 과제 중 “①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인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기관·단체·시설에 ‘청소년위원회’의 단계적 설치·운영을 그 세부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이에, 1990년대 후반 서울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와 서울시립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등을 시작으로 하여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남화성, 2009).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충청남도청소년자치위원회 등 현재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보다 지역 청소년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격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시되어 설치·운영된 시기는 2001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침에 시설의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권장사항이 명시(서정아·김지경, 2012)된 이후,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의 시행과 2004년 2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의 4개 정책방향⁶⁾ 중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현안에 관한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함과 더불어, 청소년 수련활동 선진화의 하위 추진과제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청소년평가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5) ①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자율적 참여 기회 확대, ② 청소년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③ 국제화·정보화시대 주도 능력 배양, ④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⑤ 가정과 지역 사회의 역할강화와 참여확산

6) 정책방향 ① 국가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② 문화예술·관광·체육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③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 정책 추진, ④ 객관적 연구와 조사에 의한 청소년정책의 과학화·체계화

내용이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남화성, 2009). 이 계획에 의거하여 최초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예산이 지원되어 80여개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설 참여도와 지원예산 사용 실태를 평가하여 시설 운영과정에 의견 반영의 성과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정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된 위원회에 해외청소년수련시설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설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이 평가위원회는 전년도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사례를 모아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등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II-5 청소년운영위원회 연도별 운영실적

연도	운영지원 (개소)	지원예산 (백만 원)	비고
2003	85	425	
2004	126	260	
2005	170	260	
2006	210	210	
2007	250	250	
2008	258	258	
2009	273	273	
2010	286	286	
2011	286	286	
2012	305	305	

* 출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3). 2013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5년 104개소에서 2012년 305개소로 확대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공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고를 편성하여 1개 청소년운영위원회당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1개소당 125만원의 국고를 지원하였다.

2003년 80여 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이래로 2012년 현재 305개 이상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738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176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의 대부분과 일부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에서 매년 4,100명 이상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이 각 시설과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얻어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착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실질적인 사회참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단순히 의견만을 제시하거나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반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개발의 기회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 간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교류활동을 통해 전국의 우수 청소년활동 및 운영사례를 발굴하는 기회가 된다. 넷째, 지역 사회 단위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통로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이 속한 지역 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남화성, 2009)

현재 각 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활동은 크게 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③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활동 수행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서정아·김지경, 2012).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이 세 가지 주요 활동을 통해 시설의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동아리, 자치조직 등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청소년수련시설과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속한 지역 사회의 청소년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효과성과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타 시설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개최하는 축제나 체험활동 행사, 홍보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일부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있으나, 이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의견을 시설에 반영하기보다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획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주요 실적이나 성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남화성, 2009).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참여기구 간 차별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청소년 친화적 시설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일부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더불어, 대부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주어지는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각 시설의 운영대표자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담당간사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동아리나 기획단 등의 자치조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남화성, 2009).

실제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지침이나 규정, 매뉴얼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된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지표와 2006년에 발간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매뉴얼(YMCA, 2006)”뿐이며, 이후에 청소년지도사에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연수는 일부 지역이나 시설에서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권한, 운영방안과 관련한 표준화된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남화성, 2009).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참여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청소년참여기구 간 차별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 청소년 친화적인 청소년수련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일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의 대표성에 문제점 등이 제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서정아·김지경, 2012; 남화성, 2009; 최창욱·조혜영, 2006).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선행연구 분석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시작부터이다. 이처럼 외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매우 짧고 논의도 적은 이유는 정책적 기간이 짧았던 문제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던 권위주의, 장유유서 등 성인중심주의적 전통 때문이다(김정주 외, 1999).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청소년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정주 외, 1999). 최창욱(1991)은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상, 내용, 과정에서 청소년 소외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1998년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청소년의 소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함병수 외, 1991; 천정웅, 1998; 김정주 외, 1999).(최창욱·조혜영, 2006; 재인용).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1998년 정부가 확정 한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참여중심의 청소년정책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참여의 정책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참여의 정책화가 극히 최근의 일이고 또한 청소년참여에 대한 논의나 실천적 사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최창욱·조혜영, 2006; 재인용).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학술적 연구보다는 정책연구로서 정부의 각종 자료집이나 평가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보고서 등이다. 학술적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과 발전방향에 관련된 연구,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청소년의 참여경험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 셋째, 기타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참여기구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를 조사하며,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방향 제시는 주로 각 년도 청소년참여대회 자료집이나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다루어 왔다. 학술적으로는 김정주 외(1999), 김경준(2004), 최창욱·조혜영(2006), 최창욱·조혜영(2007), 조혜영·최창

욱(2008), 오해섭·장근영(2007), 이상희·이혜원·최경옥(2009), 최창욱·김승경(2010) 등의 연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김정주 외(1999)의 연구는 지역 사회 단위에서의 청소년참여 운동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김경준(2004)은 청소년참여기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실태와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창욱·조혜영(2006), 최창욱·조혜영(2007), 조혜영·최창욱(2008)의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참여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 청소년참여기구별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오해섭·장근영(2007), 최창욱·김승경(2010)의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중 청소년특별회의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희·이혜원·최경옥(2009)은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여 16개 시도 단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현황(위원구성, 운영주체, 활동내용, 정책반영여부 등)을 분석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참여 효과 관련 연구들이다.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활동 참여의 다양한 효과 관련 연구들은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할 논문들은 김희성(2004), 최창욱·조혜영(2006), 김영인(2007), 최창욱(2007), 강영배(2009), 진은설·임영식(2009), 윤동엽·문성호(2010), 최창욱·신운호(2012) 등이다.

김희성(2004)과 윤동엽·문성호(2010)는 청소년들이 참여활동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정치·사회적 결정권 및 역량을 형성하였는지를 연구하였고, 최창욱·조혜영(2006)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 자아 존중감, 리더십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영인(2007)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시민성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최창욱(2007)과 최창욱·신운호(2012)는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의 리더십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영배(2009)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직업의식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진은설·임영식(2009)은 청소년활동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활동경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관련 다양한 변인들과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청소년들의 참여활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기타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연구들이다. 청소년참여기구와 관련된 기타 연구들은 문성호(2006), 손의숙(2006), 조선희(2003), 천정웅(2011) 등이 있다. 문성호(2006)는 정책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분석하였고, 손의숙(2006)은 청소년들의 정책참여 수준을 진단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조선희(2003)는 청소년참여기구는 아니지만 다양한 지역 사회기관들의 청소년 참여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천정웅(2011)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참여형태를 유형화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3 장

청소년 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
2.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과
사례의 시사점

[제 3 장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과 사례]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

1) 국제연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형성

국제연합(UN)은 세계적인 청소년정책의 동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각국 정부에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세계적인 동향을 이해하는데 있어 국제연합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 관련 활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향후 청소년정책의 동향 이해에도 기본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게 한다.

국제연합 체제 내에서 수행되는 청소년 관련 활동은 주요사안을 토의·의결·권고하는 총회(General Assembly), 사무국 청소년과(UN Youth Unit),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의 지역위원회의, 총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인 UNDP, UNICEF, UNIFEM, UNDCP, UNV, UNEP, UNFPA, UN-HABITA, CICP, OHCHR, 전문기구인 ILO, FAO, UNESCO, WHO, 그리고 협력사업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UNAIDS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김영지·전성민, 2002: 25-115; 전명기, 2002: 294 재인용).

국제연합 총회는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1985년에 전 세계에 시행된 ‘국제 청소년의 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청소년의 인구, 교육, 고용, 그리고 건강 등 국제연합의 청소년에 관한 모든 통계는 이 정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청소년의 연령에 관한 UN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당연히 14세 이하의 사람은 아동이 된다. 그러나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서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아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UN, 1989). UN이 이렇게 모순적인 연령 규정을 한 것은 의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UN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사한 협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협약이 가능한 한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보호와 권리를 제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는

법적 처벌을 받는 나이, 즉 ‘성년 연령’(age of majority)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한다. 많은 국가에서 이 나이를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8세가 지난 사람은 성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나 일상적 의미는 국가마다 그 고유한 사회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청소년 연령대의 범주에서 십대(13-19세)와 청소년 후기(young adult, 20-24세)를 구별하는 것은 각 연령대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건강상의 문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명기, 2003: 294).

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UN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에 채택되고 1990년 9월에 국제법으로 발효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가진 권리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24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아동권리선언’의 원칙과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정과 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 사회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과 이익, 자율성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이 성장발달 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이 조약을 비준하고 동년 12월 20일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1994년 이후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의 구제와 보호, 그리고 그 실현에 필요한 권리를 거의 포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UNICEF, 1992; 전명기, 2003: 2997 재인용).

(1)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및 인권 주체로서의 청소년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은 아동 및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약 전체에 관철되어 있는 조약의 기본 이념으로서, 이의 관철을 위한 전제로서 이 조약 전문 3항2조에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격 주체로서의 청소년에 관한 규정은 종래 청소년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 향유 및 행사의 주체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주체로서의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 조항들은, 표현·정보의 자유(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14조), 결사·집회의 자유(15조), 프라이버시·통신·명예의 보호(16조), 신체의 자유·사법절차(37조, 40조) 등이다.

(2) 아동 및 청소년의 특별보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에 있어 보호가 예상되는 객체의 측면을 인정하여, 현실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보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규정은 청소년의 발달 및 권리보장을 실현하는 환경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즉, 인격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으며(전문6항), 아동발달을 위한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27조),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32조). 또한, 일반적인 건강·의료·사회보장·생활수준에의 권리(제24조-27조), 난민아동의 보호(22조), 소수자·원주민 아동의 권리(30조), 장애아의 권리(23조), 경제적 착취·유해노동·마약·성적 착취·학대·유괴·매매 등으로부터의 보호,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38조), 희생아동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39조) 등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3) 부모·가정환경의 중시와 국가의 책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과 발달을 위해 부모 및 가족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7조, 8조, 9조, 10조, 20조, 21조). 또한,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는데(7조, 8조, 9조, 10조, 20조, 21조), 가정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발달·보호에 대한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가정이 1차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리된 청소년의 기본권과 사회적 주체로서의 참여권은 이후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 프로그램’(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 이하 WPAY)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3)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

국제연합은 제50차 총회(1995)에서 경제사회이사회의 권고로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WPAY)을 채택하였다. 총장 명의로 작성된 WPAY의 서문에서는 참여·발전·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 청소년의 해 이래 10년간은 세계가 기본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한 기간”이며, 이러한 변화는 적어도 21세기가 시작하는 처음 10년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 WPAY는 첫째,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국가적 행동 프로그램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과 정책을 제공하며, 둘째, 청소년들의 생계와 증진된 복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과 기제를 제공하고, 셋째, 세계 청소년의 해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2000년과 그 이후까지의 행동 프로그램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행동 프로그램은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의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과,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건설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기회의 양과 질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임성호 역, 1998: 전명기, 2003: 295 재인용).

국제연합은 변화하는 세계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 WPAY의 목표 성취를 어렵게 하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많은 나라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N Economy & Social Affairs, 2010 참조; 전명기, 2003: 295-295 재인용).

- ① 청소년 프로그램과 활동들에 유용한 자원을 감소하는 나라들, 특히 상당한 부채가 있는 국가들의 물리적 재정적 자원에 대한 요구
- ② 난민, 거주할 곳 없는 사람과 이주자와 같이, 주변화를 초래하거나, 청소년 사이의 빈곤과 삶의 조건의 악화, 기아를 초래하는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에서의 불평등
- ③ 무장 갈등으로부터 돌아온 청소년들이 사회 통합에 직면하게 됐을 때의 어려움과, 교육과 고용에 접근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 ④ 젊은 여성들의 고용과 교육에서의 동등한 기회에 대한 불충분한 접근과 젊은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 ⑤ 장기간의 실업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실업

- ⑥ 선진 사회에서 실제로 중대한 관심사인, 빈곤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소비와 생산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형으로부터 초래되는 지구적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
- ⑦ 흡연, 알코올 중독, 정신병 관련 약물 중독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건강에 대한 위협의 증가와 말라리아와 HIV/ AIDS 같은 질병의 범위의 증가
- ⑧ 직업 교육과 훈련의 부적절한 기회, 특히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부적절한 기회
- ⑨ 청소년의 사회화와 공유된 책임에 대한 매개로서의 가정의 역할 변화
- ⑩ 사회 생활에서 청소년들의 참여 및 사회 발전, 복지에 대한 기여, 기회의 부족
- ⑪ 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심연에 빠뜨리는 기아, 영양실조, 쇠약하게 하는 질병의 유행
- ⑫ 청소년이 책임을 공유하고 건강한 가족 형성의 토대가 되게 하는, 가족 생활 교육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국제연합은 WPAY의 원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청소년과 관련하여 다음 10개의 주제를 정책과제로 강조하여 권고한 바 있다(전명기, 2003: 296-297 재인용).

- 교육(Education)
- 고용(Employment)
- 기아와 빈곤(Hunger and poverty)
- 건강(Health)
- 환경(Environment)
- 약물 오남용(Drug abuse)
-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 여가 활동(Leisure-time activities)
- 여성 청소년(Girls and young women)
-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life of society and in decision-making)

이후 10년간 이상의 10개 주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검토한 결과, WPAY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5개의 주제 영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5개의 추가적인 주제영역은 2007년에 공식적

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개발 분야의 정책과 실행의 지침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세계 행동 프로그램은 15개 주제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UN은 확장된 5개 영역을 포함한 15개 주제 영역의 상호관계와 실행,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시행 수단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UN Economy & Social Affairs, 2010: ii-iii). 확장된 5개 주제 영역을 다음과 같다(UN, 2007).

- 지구화(Globalization)
-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에이즈(HIV/AIDS)
- 무력 갈등(Armed conflict)
- 세대 간 문제(Intergenerational issues)

국제연합이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분야에서의 국가적 수용능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질적 측면에서나 양적 측면에서 모두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15개 주제 영역은 모두 전 세계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청소년개발이라는 관점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15개 주제 영역이 모두 청소년 참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이 바로 10번째 주제 영역인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life of society and in decision-making)이다.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소년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참석자들은 오늘날 인류의 생활기반인 지구가 인구증가와 경제활동의 증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제도적 틀 그리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로 인하여 지구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어 다음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전 세계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UNEP, 1992; 전명기, 2003: 299 재인용).

의제21은 총 4부 40장(사회경제 : 1-8장, 자원의 보존 및 관리 : 9-22장,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 23-32장, 이행수단 : 33-40장)에 걸쳐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인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 의제21의 제25장에서는 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그들의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이 향후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표제 하에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주요 정책목표 및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다(전명기, 2003: 300-302).

(1) 환경보호 및 경제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 증진 및 적극 참여

전 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은 지적 기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더하여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의 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 제공 등)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제시되어 온 각종 조치 및 권고안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목표 ① 각국은 청소년 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과 정부 간 대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제 21’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 50% 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성차 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④ UN 및 각국은 모든 UN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의 창출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 퇴치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법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의 아동

아동은 지구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과반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아동은 환경적 퇴보(degradation)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아동은 또한 깊은 인식을 가진 '환경적 사고의 지지자'(highly aware supporters of environmental thinking)이기도 하다. 환경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그것의 미래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특정이익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참여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목표 ① 독자적 정책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 (a) 1990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 채택된 목적에 입각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 (b)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목표 ② 각국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환경 및 개발분야(특히 건강, 영양, 교육, 문맹 및 빈곤 해소)에서 1990년대의 아동관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b) 초기 시점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회의'(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UN총회 결의안 44/25)를 채택한다.
- (c) 지역 사회의 기본적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환경보호 활동을 증진시키고, 가정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아동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청소년, 아동 및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인구의 참여 및 세력확장을 장려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지역 사회가 통합적인 자원관리 목표를 지향한다.
- (d)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환경적, 개발적 책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여아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요망한다.
- (e) 아동 및 부모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구심체 역할을

-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 사회를 동원한다.
- (f) 아동의 관심을 환경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발달시킨다.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할당 및 권리부여, 주거 및 여가 요구,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의 오염 및 약물 통제절차 등이 포함된다.

(3)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은 이상에서 제기된 분야들에 있어서 상호협력과 조정

UNICEF는 다른 UN 기구, 각국 정부 및 민간기구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이상에서 언급한 조치들에 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의제21에서의 청소년 관련 정책과 그 실천목표들의 내용 구성은 단순히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만을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 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은 지적 기여 및 지지 동원 능력에 더하여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한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 제시되어 온 각종 조치 및 권고안들이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처럼 청소년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특히 기성세대에 비해 미래의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한 까닭에 ‘발전’의 계획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전명기, 2003: 302).

실제로 코펜하겐, 베이징, 이스탄불 회의에서의 청소년들의 적극 참여, 특히 UN이 주최한 이스탄불 제2차 UN인간정주회의(HABITAT II; the 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등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는 의제21의 실천적 과제 개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의제21이 채택된 이후 UN 주최 제2회 세계청소년포럼(199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을 통한 청소년과 유엔기구 간의 동반체제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UN의 ‘지속개발 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가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위해 Youth Intersessional Project(YI), 세계청소년포럼, IISD 그린캠퍼스, 청소년 환경상 등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UN기구 활동 참여 연계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의 활동까지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청소년을 통해서만이 말 그대로의 '지속'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도종수·고성혜·전명기, 2001).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제 21의 취지를 실천하고자 1994년 4월 당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한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에서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경제기획원 주관하에 각 장별 내용에 따라 소관부처를 결정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 1996년 3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가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부문의 국가실천계획은 건전한 아동 및 청소년활동과 환경생활화의 기회보장 및 참여확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의 환경관련 활동 및 복지지원 강화,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환경보전 정보교환 통로 개설, 청소년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의 4개 영역에 걸쳐 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전명기, 2003: 303).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요 과제로 제기된 문제는 ①상당수 아동 및 청소년의 적절하지 못한 건강, 영양섭취, 교육, 보호 상태(산업화된 국가 대도시에서 범죄집단과 약물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 위생시설, 신변보호 부족 상태에서의 학교 출석 문제 포함) ②취업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들의 불법적 노동 확산 경향 ③아동 학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AIDS 및 기타 성병의 확산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위협 등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나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다(전명기, 2003: 295-295 재인용).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적합한 조건에서 적합한 조치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제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미성년자의 취업 문제, 대도시의 슬럼화된 지역에서의 신변상의 위협이나 약물의 유혹, 소수 민족에 대한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교사의 확보나 적절한 보호시설의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도 아동의 학대와 성적인 착취, 그리고 이와 관련한 AIDS 등 성병의 확산은 개도국 못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인 대처방안의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전명기, 2003: 304).

반면 개도국들은 UN 기구들과 각국 정부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실업문제와 미성년자 불법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도 많은 장애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 영양섭취, 주거 등에 있어서 성장에 적합치

않은 조건에 있으며, 아동의 학대와 성적인 착취, 그리고 이와 관련한 AIDS 등 성병의 확산 등의 문제에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전명기, 2000: 169-185; 전명기, 2003: 304).

2.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⁷⁾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를 탐색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목록을 수집하고 관련 누리집을 방문하여 수집 가능한 정보들을 정리하였다. 다음 <표Ⅲ-1>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소년참여기구 외국사례 목록이다.

표 Ⅲ-1 청소년참여기구 외국사례 목록

목록	기구명	비고
UN	유엔경제사회부의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 (Division for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 Youth Unit)	
유럽	유럽 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	
	유럽 청소년의회(European Youth Parliament)	
영국	영국 청소년위원회(The british Youth Council)	
	영국 청소년의회(UK Youth Parliament)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Scottish Youth Parliament)	
스웨덴	스웨덴 국가청소년위원회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호주	호주 청소년교류연합(Australian Youth Affairs Coalition)	
	호주 청소년포럼(Australian Youth Forum)	
뉴질랜드	뉴질랜드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in New Zealand)	
미국	청소년백악관회의 (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파키스탄	파키스탄 청소년의회(Youth Parliament Pakistan)	
케냐	세계청소년의회(World Youth Parliament)	
기타	국제청소년위원회(International Youth Council)	

7) 청소년참여기구 해외 사례는 진은설 중앙대 박사의 도움으로 정리되었음을 밝혀 둔.

1)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⁸⁾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의 주요 기능은 첫째, 청소년의 세계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권리 및 포부에 대한 의식 증진, 둘째,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업무의 구조 구성, 셋째, 사회·경제 등의 청소년프로그램 개선, 넷째, 국가 발전과 국제협력에 관한 결정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통한 국가에 대한 청소년의 영향력 강화 등이다.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은 1981년이 시초다. 1981년 UN경제사회부는 ‘국제 청소년의 해’를 맞이하여 UN사무국 경제사회국 사회개발 및 인도주의 담당센터 내에 ‘국제청소년의 해’사무국을 설립하였다. 1985년에는 UN에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국제연합헌장을 선포하였고, 1993년 청소년과(youth unit)의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뉴욕으로 기관을 이전하여, 기구의 구조를 체계화하였다. 1995년에는 ‘국제 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청소년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7년에는 청소년과를 UN경제사회부의 사회정책·개발국 내로 부처를 이동하였다.

2) 유럽 청소년포럼⁹⁾

유럽 청소년 포럼의 주요기능은 청소년들이 유럽 사회를 형성하고 생활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 이에 청소년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유럽 청소년포럼은 유럽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 유럽위원회, UN 같은 국제기관 내에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럼은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제 비정부 청소년연합의 2개 기구로 구성된다.

유럽 청소년포럼의 운영목적은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의 사회참여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국제기구, 유럽연합, 유럽의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8) <http://social.un.org/index/> (2013년 9월 2일 검색)

9) http://www.coe.int/t/dg4/youth/Partners/European_youth_forum_en.asp (2013년 9월 2일 검색)

유럽 청소년포럼은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지속가능하고 독립적인 청소년단체를 만들고자 한다. 이 청소년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참여를 촉진하고자하는 것이다.

유럽 청소년포럼의 기본 운영방침은 상호이해, 민주주의, 존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 시민연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유럽 청소년포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청소년단체로서 세계 각 지역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유럽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유럽 청소년의회¹⁰⁾

유럽 청소년의회의 주요기능은 첫째, 유럽의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시민성 확립과 유럽정치에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둘째, 청소년들의 국제이해능력 함양 및 상호의사소통 강화, 셋째, 청소년활동을 통한 유럽 청소년 개개인의 능력 개발, 넷째, 청소년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지속적인 포럼 운영 등이다.

유럽 청소년의회는 젊은 유럽시민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 의회는 정당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교육프로젝트로서 1989년 최초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유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정치교육사업, 아이디어 교환 등을 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유럽 청소년의회는 유럽에 있는 청소년참여기구 중에서 가장 큰 정치토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현재 유럽 청소년의회에는 35개의 회원국 연합회가 있으며, 국가위원회, 이사회, 슈바르츠코프 기금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중에서 국가위원회는 국가별 교사(지도자), 유럽청소년의회 선배들, 청소년위원들로 구성되고, 이사회는 8명으로 이루어진다.

유럽 청소년의회 전체 네트워크는 매년 약 200개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제회의는 연간 총 3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으며, 각 회의는 10일간 개최되며, 각 회의당 35개 회원국에서 온 270명의 청소년들이 이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부터 ‘하인즈-슈바르츠코프 재단’에서 매년 ‘올해의 젊은 유럽인(Young European of the Year)상’을 수여함에 따라 청소년의회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유럽 청소년의회에 참여 시 학생과 교사(지도자)로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미성년자인 16-18세의 청소년들의 토론 준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선배들은 유럽 청소년의

10) <http://www.eypej.org/> (2013년 9월 2일 검색)

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계, 정치, 사회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 선배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매해 의장에게 전달한다.

4) 영국 청소년위원회¹¹⁾

영국 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국가청소년의회로서 25세 이하 청소년에게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적으로 사회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영국 청소년위원회는 1948년 BYC(The British Youth Council)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1963년에 영국정부로부터 독립하였다. 1970년에는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데 조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1987년부터는 UN아동권리협약을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하였다. 1990년에는 청소년의 고용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함에 따라 영국 청소년들의 고용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였다. 2000년에는 유럽 청소년백서 수립을 주도하였으며, 2008년 설립 60주년 기념 청소년투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영국 청소년위원회는 230개 이상의 청소년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 청소년 주도의 네트워크(예를 들면 청소년의회, 청소년 네트워크, 청소년특별 위원회와 같은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격려하는 사업, ②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캠페인 및 컨설팅 개최, ③ 기술 및 지식의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④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국제 업무 지원 사업, ⑤ 중앙 및 지역의 정보, 정치 정당, 압력집단과 미디어에 청소년의 견해 제시(지역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⑥ '청소년과 의회의 날'(지역의 청소년 대표위원들이 직접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행사의 정기적 개최 등이 있다.

5) 영국 청소년의회¹²⁾

영국 청소년의회는 사회변화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11) <http://www.byc.org.uk/> (2013년 9월 2일 검색)

12) <http://www.ukyouthparliament.org.uk/> (2013년 9월 2일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국 청소년의회는 어린이 학대방지를 위한 국가협회의 책임자들에 의해 1988년 ~ 2000년에 설립되었다. 영국 청소년의회는 11~18세의 청소년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00명은 청소년 의원 369명, 부의원 230명, 의사결정자 1명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참여와 청소년집단의 의사표현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참여를 장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청소년의회는 지역회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장관과 야당 대표, 공무원과 정기적 만남추진을 추진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¹³⁾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는 1999년 6월 30일에 창설되었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 구성원들은 146개의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32개의 지자체에서 선출된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는 54개의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 회원단체에서 각각 2명씩의 청소년의 회 회원을 선출한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 회원은 14세부터 2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총 1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이사 4명, 자문(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전원은 16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이다.

청소년의회에는 10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문화미디어, 교육평생학습, 직업·경제, 평등, 외교, 건강·웰빙, 정의, 사회정의, 스포츠·레저, 운송환경·농촌 등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사회는 1년에 6회 개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의 직원은 총 7명이며, 자문단(Conveners Group)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는 과정 집단(Procedures Group)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회원 중 최대 5명으로 구성하여, 실행되는 체계나 절차에 대한 개정,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1년에 3회 이상 국가 의회 회기 중에 청소년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청소년의회 선거에서는 각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구를 대표하는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총 67,071명의 청소년이 투표하였다. 청소년의회는 다른 참여기구와는 달리 정책참여

13) <http://www.syp.org.uk/> (2013년 9월 2일 검색)

가 상징적 의미가 아닌 비교적 실제 사회 내에서의 청소년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7) 스웨덴 국가청소년위원회¹⁴⁾

스웨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청소년의 영향력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기금을 배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정책관련 프로젝트 및 국제협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8) 호주 청소년교류연합¹⁵⁾

호주 청소년교류연합은 청소년이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관이다.

호주 청소년교류연합은 2002년에 설립되었다. 청소년교류연합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자 조직과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을 주요사업의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힘쓰며 청소년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지체계로서 노력하고 있다. 둘째,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인권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며, 호주 내에서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모든 청소년이 인종, 성별, 성적,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셋째, 호주 청소년교류연합은 호주 청소년이 사회 모든 측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가치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14) <http://www.ungdomsstyrelsen.se/english> (2013년 9월 2일 검색)

15) <http://www.ayac.org.au/index.php> (2013년 9월 2일 검색)

9) 호주 청소년포럼¹⁶⁾

호주 청소년포럼은 15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 간의 주요 커뮤니티 클럽이다. 호주 청소년 포럼은 토론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호주의 정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10) 뉴질랜드 청소년의회¹⁷⁾

뉴질랜드에서는 매 3~4년마다 청소년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선거연령 18세 이하 20주년 기념이 되던 해인 1994년에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1994년 의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 뉴질랜드 내각이 청소년부장관에게 청소년의회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뉴질랜드 청소년의회는 현재 뉴질랜드 정부 청소년개발부에 속해 있다.

2013년도 현재 뉴질랜드 청소년의회는 각 위원회별 특별한 주제를 갖고 회의를 진행한다. 즉, 사회 서비스, 건강, 운송 및 산업 관련, 지방정부 및 환경, 교육 및 과학, 상업, 외교·국방·무역, 마오리족 관련 등의 주제를 갖고 있다. 뉴질랜드 청소년의회에서 실시한 모의 법안은 ①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 ② 투표 방법에서 전자 투표를 포함시키는 법안, ③ 모든 유권자의 투표 의무화 법안, ④ 의회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시키는 법안 등이 있다.

11) 미국 청소년백악관회의¹⁸⁾

미국의 청소년백악관회의는 관련 연방정부 기관장의 협의 하에 대통령이 청소년들을 소집하는 형태로 기획·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백악관회의는 국가재정담당 책임자를 포함하여 연방·주·지방 정부 대표자,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백악관회의의 기능은 첫째, 청소년의 가치와 요구에 대한 인식 증대, 둘째,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에 대한 점검, 셋째, 미국 청소년과 그들 가족의 복지를 구체적으로 개선시키고, 국가과제 개발, 넷째, 청소년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실시 등이 있다.

16) <http://www.youth.gov.au/sites/youth/ayt/> (2013년 9월 2일 검색)

17) <http://www.myd.govt.nz/young-people/youth-parliament/> (2013년 9월 2일 검색)

18) <http://www.cwla.org/advocacy/whitehouseconfhistory.pdf> (2013년 9월 2일 검색)

청소년백악관회의는 1919년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지기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929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1939년에는 민주적 가치와 아동·청소년복지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회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1950년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격발달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의 창작의 자유와 자신의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바탕이 되었다. 1980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격발달 지원을 통한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2) 파키스탄 청소년의회¹⁹⁾

파키스탄 청소년의회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1년에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회 회의는 평균 4일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1년을 통틀어 총 25일 정도의 본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키스탄 청소년의회는 참가대상 청소년 연령은 18세에서 29세이며, 총 61명으로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에는 6명의 내각과 차기내각, 6개 상임위원회, 1개 자문(운영) 위원회가 있다. 청소년의회는 국회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국무총리, 야당의 지도자, 청소년 내각, 차기 내각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등을 선출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표 회원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청소년의회는 국회와 다른 국가의 청소년의회의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한다. 6개의 상임위원회는 ①기획·제정·경제, ②외교·국방, ③정보, ④기술·통신, ⑤카슈미르·길기트 발키스탄(분쟁지역)·연방직할부족지역, ⑥법·의화·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키스탄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정치 및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주요사업은 입법행위를 하는 방법 교육, 국내외 문제에 대한 토론 진행,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 위원회의 입법안 논의, 시민소요 없이 정부 변화시키기, 자체적인 행위규칙 실행 및 제정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회는 국내외 청소년관련 이슈에 대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유능한 시민으로서 개인을 개발시키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19) <http://www.youthparliament.pk/> (2013년 9월 2일 검색)

파키스탄 청소년의회 프로젝트는 덴마크대사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유주의당과 녹색주의당 등 2개의 모의정당이 있어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두 정당 중 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고위 정치지도자들이 청소년의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예를 들어 특별행사 및 회의 때 정치고위자 및 저명인사들과 같이 자리하기도 하며, 국무총리의 지시로 연방내각회의에 청소년의회 의원이 가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13) 케냐 세계청소년의회²⁰⁾

케냐의 세계청소년의회는 2007년 케냐 사회법에 등록된 NGO기구이다. 세계청소년의회는 회장/집행위원장, 의장, 대변인, 법률전문가, 관리책임자로 구성된 이사회 5명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청소년의회 사무국은 집행위원장, 사무총장, 회계원, 당연직위원-청소년대변인,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의회에서 청소년의회는 의장, 사무국, 청소년전문가, 청소년대변인, 청소년부처 장관, 기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케냐 세계청소년의회는 청소년 및 청소년기관, 세계 청소년 간의 청소년관련 이슈에 대한 행동 및 대화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청소년의회 대표적 사업은 정치가, 의사 결정자와 다른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소년의 도전과 문제에 대한 통일된 청소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 전략, 목표 등에 대해 지방정부, 국가, 국제기구 등과의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14) 국제청소년위원회²¹⁾

국제청소년위원회는 2007년 UN청소년회의에서 설립한 시민사회단체이다. 국제청소년위원회의 주요사업은 ① 청소년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 제공, ② 교육자원과 리더십, 글로벌 네트워크 제공, ③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 지원, ④ UN 연례 청소년회의의 공식 네트워크 역할, ⑤ 청소년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성장을 위한 글로벌 포럼 및 조직 구축 등이다.

20) <http://worldyouthparliament.org/about-us/> (2013년 9월 2일 검색)

21) <http://internationalyouthcouncil.com/page/vision-mission> (2013년 9월 2일 검색)

3.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과 사례의 시사점

1)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국제 동향 시사점

청소년헌장의 개정(1998)과 청소년참여기구 제도화 이후 청소년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이제 어느 수준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의견표출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참여에 있어서는 청소년인권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인권을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권리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로서 그 권리의 확보와 행사를 위한 자유가 전제되어 있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이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진다. 셋째,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권의 근거이기 때문에 인권은 제도적 권리 이전에 도덕적 권리이다. 넷째, 이것이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만큼 당위적 권리이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타당한 만큼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봉철, 1991: 6-; 최원기·전명기, 2003: 11-12 재인용).

하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갖는 존재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인권에 대한 논의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포착하기 어렵다. 즉, 현실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인권이란 사회 속에서 개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사람과 조직·제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인적·물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즉, 인권이라는 권리의 주체도, 권리가 요구되고 행사되는 것을 존중해야 할 상대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며, 따라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영역에서 그 사회의 성원인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에 그 핵심이 있으며, 인권의 구체적인 영역은 인권의 사회영역, 즉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에 대하여 갖는 권리영역인 시민권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유권 및 복지권을 보장·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시민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유권과 복지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봉철, 1991: 12-13-; 최원기·전명기, 2003: 12 재인용).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시민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청소년이 갖는 자유권과 복지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시민권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서의 자유라는 측면과 이러한 자유가 차별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요구할 권리로서 복지권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인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시민권과 자유’에 새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최원기·전명기, 2003: 12-13).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에서 구현되는 의미를 시민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논의들이 막힘없는 무한계도를 달리는 방임의 자유론적 논의로 전개될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한시적인 정치도구로 오용되는 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실질적인 인권의 영역인 청소년의 시민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증진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청소년 참여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최원기·전명기, 2003: 13).

청소년의 참여를 시민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하면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회참여와 참정권, 법적 보호, 정보접근권 등으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시민권 함양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자유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적, 사회경제적, 성별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적 부담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이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제공, 그리고 청소년이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하고, 이용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발달권과 참여권,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복지권 차원에서 청소년이 시민권을 향유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문제와 같은 의미가 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길은배 외, 2001; 최원기·전명기, 2003: 18-30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권장사항은 당연히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실현할 주체로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인하게 하는 것들이다. 각국의 청소년 참여기구 사례들 역시 이러한 논의의 기저에서 각국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참여활동의 다양한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역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대의성의 확립과 상시적이고 주체적 논의의 장 확보, 역량 개발 등 사회적 지지 기반 강화, 그리고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청소년 관련 의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성숙한 참여활동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2) 청소년참여기구 외국사례의 시사점

외국의 청소년참여기구 총 14개에 대하여 주요기능, 역사, 조직, 운영 및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참여기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과 유럽 청소년포럼 및 유럽 청소년의회는 총괄하는 기구로서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특히 유럽 청소년포럼은 국제적 규모의 UN이나 국제기구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청소년의회는 지역회의, 국가회의, 국제회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정책에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회의는 국가별로 16~18세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지도자(교사)집단이 참여하고 있고, 유럽 청소년의회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졸업생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금을 통해 매해 올해의 젊은 유럽인상을 수여하는 점 역시 다른 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유럽 청소년의회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위원회는 문화미디어, 교육·평생학습, 직업·경제 등 10개의 위원회를 두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마다 자문위원이 배치된다. 회원단체에 있어서도 성소수자 청소년 단체도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다른 참여기구와는 달리 과정집단(Procedures Group)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실행되는 체계나 절차에 대한 개정과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스코틀랜드위원회는 2013년 청소년의회 선거에서 67,071명이 참여할 만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참여가 높고, 전반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뉴질랜드위원회 역시 사회 서비스, 건강, 마오리족 관련 등 각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백악관회의는 국가재정담당 책임자, 연방·주·지방정부 대표자,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파키스탄 청소년의회는 국회와 유사하게 청소년 국무총리, 야당의 지도자, 청소년 내각, 차기 내각과 상임위원회의 선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제정·경제, 외교·국방, 정보, 기술·통신, 카슈미르·길기트 발키스탄(분쟁지역)·연방직할부족지역, 법·의화·인권 등 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의원들은 2개의 모의정당(자유주의당, 녹색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고위 정치지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각국 청소년참여기구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청소년의회는 본회의 기간에 35개국의 대표가 의견을 제안하는 국제회의 외에도 경쟁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이 마련되어 있어서 토론의 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에 무게를 두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의제에 따른 정책과제발표와 간단한 문화행사 외에는 공식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는 많지 않다. 추후에는 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뿐만 아니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축제의 장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원들 간에도 특정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별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출범식, 예비회의 본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에서의 지도자 및 졸업생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평상시에 참여기구의 구성원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 청소년의회의 교사들은 16~18세의 청소년들에게 절차, 토론 및 발표 준비 등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관점이 필요하고 토론 및 의사결정기술 등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참여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일정 부분 청소년들에게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도자는 단순한 담당자 이상의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임기가 1년인 참여기구의 경우, 임기를 마치면 정책참여와는 무관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성인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기구 졸업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 청소년의회 졸업생의 경우와 같이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졸업생들을 발굴하여 매해 본회의의 안건을 제안하거나 자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졸업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성원들에게도 졸업생이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영국, 미국,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은 청소년참여기구의 구성원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등과 같은 고위 정치지도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청소년들에게 정책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는 참여기구가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참여가 아닌 청소년 개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를 대표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존중이 표현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만의 잔치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속적인 고민과 탐구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파키스탄 등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참여기구들은 내부적으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청소년과 직결된 분야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교육 및 경제를 비롯해서 외교·국방, 국가분쟁지역 등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토론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 위원회별로 회기마다 연구와 토론을 거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논의들을 모아서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특별회의와 같은 참여기구도 단기간의 고민을 통한 의제선정보다는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논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임기, 조직 등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4 장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1. 표본설계
2. 조사도구 개발
3. 분석방법
4. 분석결과
5. 소결

제 4 장 일반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1. 표본설계²²⁾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V-1>과 <표 IV-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3,745,611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중학교 1,836,377명(49.0%), 고등학교 1,909,234명(51.0%)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1,373,956명(36.7%), 자율고 142,710명(3.8%), 특성화고 341,294명(9.1%), 특수목적고 51,274명(1.4%)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성별 학생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표 IV-2>~<표 IV-8>에 정리되어 있다.

실제 조사결과 총 204개 학교 6,543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036명, 일반계고 2,393명, 특성화고 550명, 자율고 467명, 특목고 9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22) 본 조사는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3개 과제가 같은 톨로 조사를 진행함 따라서 기술내용이 타 2개과제와 중복될 수 있음을 밝혀 둔.

표 IV-1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99,956	103,679	109,763	379	377	375
경기	150,199	152,997	157,196	593	592	589
인천	33,007	33,856	36,010	134	132	133
강원	17,965	18,696	19,126	163	163	163
충북	18,872	19,663	20,451	130	130	129
충남	24,652	25,360	25,865	195	195	194
대전	19,511	20,455	21,139	88	88	87
경북	29,648	29,624	31,740	291	290	289
경남	40,851	42,153	43,474	273	273	272
부산	36,106	37,862	40,204	168	168	169
대구	31,351	31,893	34,485	123	122	121
울산	15,053	15,763	16,657	61	61	61
전북	22,898	24,121	24,643	208	208	206
전남	22,261	22,916	23,825	251	252	253
광주	21,220	22,173	23,161	86	86	85
제주	7,786	7,828	8,263	43	43	42
합계	591,336	609,039	636,002	3,186	3,180	3,168

표 IV-2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5,488	76,923	75,709	15,019	15,068	17,273	17,881	18,310	18,166	4,307	4,414	4,257
경기	125,265	123,989	120,813	3,850	3,718	3,391	21,923	22,213	21,604	4,244	4,330	4,086
인천	25,484	26,126	26,075	1,502	1,500	1,448	7,260	7,311	7,445	961	987	944
강원	15,107	15,026	14,572	154	160	158	3,557	3,277	3,134	394	382	295
충북	12,871	12,510	12,265	921	1,053	1,037	6,071	6,011	5,751	420	384	342
충남	19,788	19,262	18,700	1,561	1,455	1,343	4,777	4,743	4,481	483	463	407
대전	13,950	13,965	13,203	2,953	3,018	3,253	3,932	3,554	3,368	657	645	625
경북	22,698	22,489	22,125	2,449	2,422	2,418	6,575	6,326	6,241	589	570	498
경남	34,017	33,864	33,048	2,135	2,524	2,190	6,446	6,148	6,129	732	701	564
부산	25,838	26,286	27,355	3,936	4,030	3,985	9,726	10,015	9,051	2,109	2,006	1,943
대구	20,619	21,699	20,994	6,223	6,450	6,481	7,037	6,801	6,691	893	856	705
울산	12,359	12,680	12,230	705	731	906	3,426	3,381	3,333	359	362	245
전북	18,301	18,318	18,060	1,365	1,308	1,315	5,067	4,839	4,588	526	526	477
전남	15,649	15,772	14,975	1,862	1,750	1,795	6,447	6,088	6,024	448	434	348
광주	16,655	16,963	15,939	1,639	1,623	1,892	3,896	3,849	3,783	330	350	300
제주	5,974	6,018	5,940	238	254	249	1,591	1,566	1,461	142	140	94
합계	460,063	461,890	452,003	46,512	47,064	49,134	115,612	114,432	111,250	17,594	17,550	16,13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V-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0	177	174	45	45	45	74	75	75	17	17	17
경기	332	321	311	11	11	10	72	72	72	18	18	16
인천	79	78	76	5	5	4	29	29	29	6	6	6
강원	89	89	89	1	1	1	23	23	23	4	4	4
충북	47	46	46	3	3	3	30	30	30	4	4	4
충남	79	79	78	6	6	6	29	29	29	4	4	4
대전	37	37	37	8	8	8	12	12	12	4	4	4
경북	125	126	126	9	9	9	51	51	51	6	6	6
경남	141	140	137	8	8	7	34	34	34	6	6	5
부산	80	80	80	14	14	14	39	39	39	10	9	9
대구	51	51	51	16	16	16	20	20	20	5	5	4
울산	34	34	33	3	3	3	12	12	12	3	3	3
전북	91	91	91	5	5	5	32	32	32	4	4	4
전남	95	97	95	6	6	6	48	48	48	5	5	5
광주	46	45	44	6	6	6	12	12	12	3	3	3
제주	20	20	20	1	1	1	7	7	7	2	2	2
합계	1,526	1,511	1,488	147	147	144	524	525	525	101	100	96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V-4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남학생수			여학생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2,172	54,323	57,284	47,784	49,356	52,479
경기	77,748	79,211	80,866	72,451	73,786	76,330
인천	17,217	17,594	18,495	15,790	16,262	17,515
강원	9,314	9,743	9,814	8,651	8,953	9,312
충북	9,813	10,291	10,441	9,059	9,372	10,010
충남	12,877	13,154	13,367	11,775	12,206	12,498
대전	10,211	10,636	11,013	9,300	9,819	10,126
경북	15,691	15,629	16,620	13,957	13,995	15,120
경남	21,400	22,122	22,777	19,451	20,031	20,697
부산	19,092	20,116	21,037	17,014	17,746	19,167
대구	16,556	17,173	18,260	14,795	14,720	16,225
울산	7,943	8,495	8,749	7,110	7,268	7,908
전북	11,818	12,505	12,822	11,080	11,616	11,821
전남	11,629	11,821	12,308	10,632	11,095	11,517
광주	11,002	11,522	11,942	10,218	10,651	11,219
제주	4,081	4,061	4,343	3,705	3,767	3,920
합계	308,564	318,396	330,138	282,772	290,643	305,864

표 IV-5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8,023	39,404	38,125	10,339	10,380	12,452	8,443	8,605	8,740	1,389	1,409	1,304
경기	65,679	64,888	63,164	1,936	1,934	1,830	12,115	12,240	12,131	1,488	1,560	1,572
인천	13,493	13,832	13,938	819	832	781	3,747	3,785	3,894	413	422	400
강원	7,475	7,488	7,320	85	83	93	2,375	2,227	2,163	187	178	102
충북	6,696	6,537	6,406	477	573	544	3,404	3,337	3,314	181	145	98
충남	10,180	9,890	9,766	954	917	819	2,848	2,822	2,670	169	156	142
대전	6,953	7,079	6,834	1,746	1,769	1,841	2,353	2,137	1,978	244	245	208
경북	11,039	11,065	10,943	1,604	1,610	1,669	4,479	4,335	4,449	243	247	168
경남	17,289	16,925	16,574	1,710	2,175	1,915	3,974	3,814	3,877	365	357	220
부산	13,665	13,714	14,654	2,010	2,023	1,988	5,942	6,268	5,652	815	739	690
대구	10,267	10,916	10,626	3,531	3,637	3,717	4,399	4,337	4,432	363	316	210
울산	6,536	6,805	6,306	360	382	689	2,057	2,007	2,062	141	127	62
전북	8,741	8,760	8,577	1,236	1,194	1,213	2,971	2,915	2,799	198	220	176
전남	7,394	7,646	7,162	1,401	1,290	1,357	3,794	3,442	3,571	173	167	118
광주	8,343	8,381	7,861	959	978	1,175	2,211	2,199	2,255	152	163	113
제주	3,338	3,343	3,300	0	0	0	761	744	718	65	64	27
합계	235,111	236,673	231,556	29,167	29,777	32,083	65,873	65,214	64,705	6,586	6,515	5,61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V-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7,465	37,519	37,584	4,680	4,688	4,821	9,438	9,705	9,426	2,918	3,005	2,953
경기	59,586	59,101	57,649	1,914	1,784	1,561	9,808	9,973	9,473	2,756	2,770	2,514
인천	11,991	12,294	12,137	683	668	667	3,513	3,526	3,551	548	565	544
강원	7,632	7,538	7,252	69	77	65	1,182	1,050	971	207	204	193
충북	6,175	5,973	5,859	444	480	493	2,667	2,674	2,437	239	239	244
충남	9,608	9,372	8,934	607	538	524	1,929	1,921	1,811	314	307	265
대전	6,997	6,886	6,369	1,207	1,249	1,412	1,579	1,417	1,390	413	400	417
경북	11,659	11,424	11,182	845	812	749	2,096	1,991	1,792	346	323	330
경남	16,728	16,939	16,474	425	349	275	2,472	2,334	2,252	367	344	344
부산	12,173	12,572	12,701	1,926	2,007	1,997	3,784	3,747	3,399	1,294	1,267	1,253
대구	10,352	10,783	10,368	2,692	2,813	2,764	2,638	2,464	2,259	530	540	495
울산	5,823	5,875	5,924	345	349	217	1,369	1,374	1,271	218	235	183
전북	9,560	9,558	9,483	129	114	102	2,096	1,924	1,789	328	306	301
전남	8,255	8,126	7,813	461	460	438	2,653	2,646	2,453	275	267	230
광주	8,312	8,582	8,078	680	645	717	1,685	1,650	1,528	178	187	187
제주	2,636	2,675	2,640	238	254	249	830	822	743	77	76	67
합계	224,952	225,217	220,447	17,345	17,287	17,051	49,739	49,218	46,545	11,008	11,035	10,52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V-7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1.9	32.1	33.0
경기	34.5	34.3	34.1
인천	32.8	33.2	33.9
강원	23.4	24.4	24.1
충북	25.6	26.5	27.1
충남	27.0	27.7	28.2
대전	32.1	32.6	33.1
경북	22.2	22.4	23.2
경남	26.8	27.1	27.9
부산	31.1	31.9	32.6
대구	32.9	33.2	35.5
울산	31.2	31.5	32.4
전북	23.4	23.2	23.9
전남	23.9	24.1	24.0
광주	34.1	34.4	35.6
제주	29.4	29.8	30.8
합계	28.9	29.2	29.7

표 IV-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급당 평균 학생수

구분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1학년	1학년	1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5.1	35.4	35.5	31.5	30.6	33.2	26.5	27.0	26.4	31.9	32.5	31.7
경기	35.5	35	35.2	33.3	33.6	33.5	30.9	31.0	29.9	30.4	30.8	32.4
인천	32.3	31.7	31.9	31.8	30.9	31.9	27.1	27.0	27.6	27.2	27.6	24.7
강원	27.7	27.6	26.3	14.0	14.5	14.4	24.0	22.1	20.1	31.0	29.9	22.6
충북	34.7	34.1	33.1	30.6	34.4	33.9	29.1	28.8	27.3	23.9	22.3	20.4
충남	32.7	32.2	31.7	31.4	30.0	29.7	26.1	25.2	24.4	29.5	27.8	24.5
대전	37.0	36.7	35.1	34.5	35.5	37.4	31.1	28.0	26.6	30.1	29.0	25.7
경북	29.7	29.3	28.7	32.4	32.0	31.9	26.4	24.9	23.5	28.9	28.0	22.4
경남	31.5	30.9	30.7	30.9	34.3	32.5	27.0	25.7	24.7	26.5	25.1	23.4
부산	33.6	33.9	34.7	30.0	30.7	30.4	27.1	27.5	24.7	28.4	29.6	28.2
대구	35.7	37.1	36.0	35.5	35.9	35.1	30.1	29.0	28.4	28.1	25.7	26.2
울산	37.8	37.5	36.8	31.9	32.9	33.4	31.4	30.0	29.1	23.7	24.3	16.7
전북	29.4	29.2	28.7	31.4	30.2	30.4	26.5	24.8	22.6	26.1	26.5	22.8
전남	27.8	27.5	26.9	34.8	34.0	34.9	23.9	21.5	21.3	25.5	22.7	19.0
광주	38.2	37.6	36.8	34.1	33.8	35.5	32.5	31.4	30.7	27.3	28.8	26.8
제주	36.1	36.2	35.7	34.0	36.3	35.6	31.1	30.6	28.8	22.8	22.5	12.1
합계	33.1	32.8	32.5	32.2	32.3	33.1	27.5	26.8	25.7	28.7	28.5	26.3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2) 표본설계

①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6,200으로 결정되었다.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pm 1.27\%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② **총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6개)
- 학교구분 :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5개)
- 학년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충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충화한다. 또한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충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V-9 학교급×학년별 모집단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저학급	중학교	1	591,336	1,836,377 (49.0%)		3,040 (49.0%)		2,697 (31.6%)	
		2	609,039						
		3	636,002						
고학급	일반고	1	460,063	1,373,956 (36.7%)	1,909,234 (51.0%)	2,274 (36.7%)	3,160 (51.0%)	2,376 (27.8%)	3,507 (41.1%)
		2	461,890						
		3	452,003						
	특성화 고	1	115,612	341,294 (9.1%)		565 (9.1%)	567 (6.6%)		
		2	114,432						
		3	111,250						
	자율고	1	46,512	142,710 (3.8%)		236 (3.8%)	480 (5.6%)		
		2	47,064						
		3	49,134						
	특수 목적고	1	17,594	51,274 (1.4%)		85 (1.4%)	84 (1.0%)		
		2	17,550						
		3	16,130						
합계				3,745,611 (100.0%)		6,200 (100.0%)		6,204 (100.0%)	

※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에 포함.

표 IV-1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519	378	90	78	85
경기	762	612	145	25	
인천	170	129			
강원	92	74	87	28	
충북	98	62			
충남	126	96			
대전	101	68			
경북	151	111	161	79	
경남	209	167			
부산	189	132			
대구	162	105			
울산	79	62			
전북	119	90	81	25	
전남	114	77			
광주	110	82			
제주	40	30			
합계	3,040	2,274			565

* 총계: 6,200명

표 IV-1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17.9	11.4	3.3	2.4	3.0
경기	26.3	18.6	5.4	0.8	
인천	5.9	3.9			
강원	3.2	2.2			
충북	3.4	1.9	3.2	0.9	
충남	4.3	2.9			
대전	3.5	2.1			
경북	5.2	3.4			
경남	7.2	5.1	6.0	2.5	
부산	6.5	4.0			
대구	5.6	3.2			
울산	2.7	1.9			
전북	4.1	2.7			
전남	3.9	2.3	3.0	0.8	
광주	3.8	2.5			
제주	1.4	0.9			
합계	104.8	68.9			20.9

* 총계: 205개

표 IV-1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2(4)	3(1)	3(1)	3(1)
경기	21(7)	15(5)	6(2)	3(1)	
인천	6(2)	3(1)			
강원	3(1)	3(1)	3(1)	3(1)	
충북	3(1)	3(1)			
충남	3(1)	3(1)			
대전	3(1)	3(1)			
경북	6(2)	3(1)	6(2)	3(1)	
경남	6(2)	6(2)			
부산	6(2)	3(1)			
대구	6(2)	3(1)			
울산	3(1)	3(1)	3(1)	3(1)	
전북	3(1)	3(1)			
전남	3(1)	3(1)			
광주	3(1)	3(1)			
제주	3(1)	3(1)			
합계	93(31)	72(24)	21(7)	15(5)	3(1)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204개

표 IV-13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435	396	81	96	84
경기	609	495	162	96	
인천	174	99			
강원	87	99	81	96	
충북	87	99			
충남	87	99			
대전	87	99			
경북	174	99	162	96	
경남	174	198			
부산	174	99			
대구	174	99			
울산	87	99	81	96	
전북	87	99			
전남	87	99			
광주	87	99			
제주	87	99			
합계	2,697	2,376	567	480	84

* 총계: 6,204명

③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V-10>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V-11>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205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25명(학년당 약 8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8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V-9>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를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200개 정도이고 조사될 목표 학생수가 6,200을 넘도록 한다.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중학교 29명, 일반고 33명, 특성화고 27명, 자율고 32명, 특수목적고 28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 및 학교수를 계산하면 <표 IV-12>, <표 IV-13>과 같다.

④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V-1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43개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 내에서 추출된 표본학교 및 최대 4개까지의 대체표본 명부는 <별첨>에 나열되어 있다.

⑤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①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② 모수추정

-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cdot\cdot})^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2. 조사도구 개발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특성변인

선행연구 분석 및 통합조사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일원칙을 통해确定的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학년), 가족구성원,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성적, 가정형편, 거주지 등 8개이다. 구체적인 문항구성내용을 다음과 같다.

- ① 성별: 남성과 여성을 표기하게 하였다.
- ② 연령(학년): 연령은 따로 질문하지 않고 조사대상이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이어서 학년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③ 가족구성원: 가족구성원은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을 제외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하게 하였다. 가족의 범주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친척, 기타, 없음 등이다.

- ④ 부모의 학력: 부모의 학력은 부모를 구분하고 각각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다’로 표기하게 하였다.
- ⑤ 부모의 직업: 부모의 직업은 역시 부모를 구분하고 현재 직업의 유무만을 물었다.
- ⑥ 성적: 학업성적은 2013학년 1학기 기준으로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 ⑦ 가정형편: 가정형편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물었는데 ‘매우 못 산다’부터 ‘매우 잘 산다’까지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⑧ 거주지: 거주지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한편, 사회심리적 특성변인은 자아 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아 존중감 척도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것을 번역한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참여현황 관련 변인

청소년참여 현황과 관련하여 문헌연구와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인지도,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참여기구 제시 의견의 정책반영 예상정도, 청소년 참여활동(정책 참여활동, 교육현장 참여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정치적 참여활동,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참여 기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통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성취기대수준,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동기, 교사·청소년지도자·부모의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정도 등 11가지 질문 문항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질문 문항에 따른 조사도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청소년참여기구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알지만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로 질문하였다.
- ②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부터 '매우 필요하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③ 청소년참여기구 제시 의견의 정책반영 예상정도: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부터 '아주 잘 반영될 것이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④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경험 및 참여기간: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경험은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 구분한 청소년 참여활동 분류를 따랐다. 이 분류에 따르면 청소년 참여활동은 정책 참여활동, 교육현장 참여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정치적 참여활동,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 등 6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하여 참여경험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참여기간은 최창욱·조혜영(2006)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1개월 미만', '1~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질문하였다.
- 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만족도를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⑥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경로: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경로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 '선생님의 권유', '청소년지도자의 권유',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타'로 질문하였다.
- ⑦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성취기대수준: 성취기대수준은 최창욱(2001)이 사용한 질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기대를 하였는지를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부터 '아주 기대가 컸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⑧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정도: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정도는 얼마나 열성적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⑨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 참여활동: 가장 하고 싶은 청소년 참여활동은 위 청소년 참여활동의 분류 6개 항목 중 가장 하고 싶은 참여활동을 선택하게 하였다.
- ⑩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동기: 앞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지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동기에 대하여 김경준(2004),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참고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 '청소년 권익증진', '삶에 대한 가치 발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행', '지역 사회 문제해결',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의 도움', '기타'로 질문하였다.
- ⑪ 교사·청소년지도자·부모의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정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의 참여활동 지원 충분도, 청소년지도자의 참여활동 지원 충분도, 부모의 참여활동 지원 충분정도를 각각 ‘매우 부족하다’부터 ‘매우 충분하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3) 청소년참여 활성화 관련 조사도구

청소년참여 활성화 관련 조사도구는 청소년 참여활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저해요인을 파악하며,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 진단, 청소년 참여활동 저해요인,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요인 등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 ①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 진단: 현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의 참여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reseder(1997)의 청소년참여 5단계와 UN(1999)의 청소년참여 매뉴얼(Youth Participation Manuel)의 청소년참여 5단계 모델을 참고로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 문항을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참여 5단계는 ‘1단계: 성인이 의사결정, 청소년에게 지시’, ‘2단계: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의사결정’, ‘3단계: 성인과 청소년이 의사결정 공유’, ‘4단계: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하고 성인과 의사결정 공유’, ‘5단계: 청소년이 의사결정, 성인은 단순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Treseder(1997)의 청소년참여 5단계 모델인 non-participation(비참여) 단계, passive involvement(수동적인 참여) 단계, influence(영향) 단계, partnership(파트너십) 단계, self-mobilization(자기 동력화) 단계를 청소년들이 응답하기 쉽게 변형한 것이다.
- ② 청소년 참여활동 저해요인: 청소년 활동참여 저해요인은 김경준(2004), 최창욱·조혜영(2006)의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시간 부족’, ‘정보 부족’, ‘방법 모름’, ‘하고 싶은 활동 부족’, ‘부모나 가족의 반대’, ‘학교나 교사의 반대’, ‘참여활동 성과 부족’, ‘기타’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 ③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물어보기 위하여 김경준(2004), 청소년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추진위원회(2005), 최창욱·조혜영(2006)의 조사도구를 참고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입시제도 개선’, ‘다양한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참여활동 정보 제공’, ‘학교나 교사의 협조’, ‘부모의 협조’, ‘기타’ 등을 질문하였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의 자료들은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차이검증(t-Test, ANOVA)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IV-14>와 같다. 전체 6,543명 중 남자청소년이 53.7%, 여자청소년이 46.3%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을 보면 중학교가 46.4%, 고등학교가 53.6%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 보면 대도시가 42.1%, 중소도시 45.7%, 읍면이 12.2%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상위권 24.9%, 중위권 40.8%, 하위권 33.9%, 무응답이 0.4%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위권 11.4%, 중위권 82.3%, 하위권 5.8%, 무응답이 0.5%로 나타났다.

표 IV-1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6,543	100.0
성별	남자	3,513	(53.7)
	여자	3,030	(46.3)
학교 유형	중학교	3,036	(46.4)
	고등학교	3,507	(53.6)
지역 규모	대도시	2,757	(42.1)
	중소도시	2,987	(45.7)
	읍/면	799	(12.2)
학업 성적	상	1,631	(24.9)
	중	2,668	(40.8)
	하	2,215	(33.9)
	모름/무응답	29	(0.4)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744	(11.4)
	중	5,383	(82.3)
	하	381	(5.8)
	모름/무응답	35	(0.5)

2)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전국의 일반 청소년들의 인지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0.5%, 청소년참여위원회 1.0%, 청소년운영위원회 1.0%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청소년특별회의 79.0%, 청소년참여위원회 74.7%, 청소년운영위원회 50.9%로 나타났다.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알지만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	무응답	계
청소년특별회의	5,167 (79.0)	1,147 (17.5)	189 (2.9)	34 (0.5)	6 (0.1)	6,543 (100.0)
청소년참여위원회	4,885 (74.7)	1,346 (20.6)	231 (3.5)	64 (1.0)	17 (0.3)	6,543 (100.0)
청소년운영위원회	3,330 (50.9)	2,683 (41.0)	445 (6.8)	68 (1.0)	17 (0.3)	6,543 (100.0)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6.1%, ‘필요하다’가 34.7%, ‘매우 필요하다’가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의 42.3%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필요성에 33.6%가 공감하였고, 여자청소년은 52.2%가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의 경우 36.9%가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46.9%가 공감하였다.

표 IV-16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계
전체		275 (4.2)	477 (7.3)	3,018 (46.1)	2,271 (34.7)	494 (7.6)	8 (0.1)	6,543 (100.0)
성별	남자	238 (6.8)	323 (9.2)	1,765 (50.2)	955 (27.2)	226 (6.4)	6 (0.2)	3,513 (100.0)
	여자	37 (1.2)	154 (5.1)	1,253 (41.4)	1,316 (43.4)	268 (8.8)	2 (0.1)	3,030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145 (4.8)	219 (7.2)	1,548 (51.0)	950 (31.3)	171 (5.6)	3 (0.1)	3,036 (100.0)
	고등학교	130 (3.7)	258 (7.4)	1,470 (41.9)	1,321 (37.7)	323 (9.2)	5 (0.1)	3,507 (100.0)

청소년참여기구에서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냐는 전망에 대하여 전체의 23.1%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20.7%, 여자청소년 25.8%,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27.9%, 고등학교 18.9%로 나타났다.

표 IV-17 청소년참여기구 의견반영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렇다	반영될 것이다	아주 잘 반영될 것이다	무응답	계
전체		471 (7.2)	1,191 (18.2)	3,357 (51.3)	1,394 (21.3)	116 (1.8)	14 (0.2)	6,543 (100.0)
성별	남자	347 (9.9)	647 (18.4)	1,781 (50.7)	651 (18.5)	78 (2.2)	9 (0.3)	3,513 (100.0)
	여자	124 (4.1)	544 (18.0)	1,576 (52.0)	743 (24.5)	38 (1.3)	5 (0.2)	3,030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190 (6.3)	413 (13.6)	1,578 (52.0)	771 (25.4)	76 (2.5)	8 (0.3)	3,036 (100.0)
	고등학교	281 (8.0)	778 (22.2)	1,779 (50.7)	623 (17.8)	40 (1.1)	6 (0.2)	3,507 (100.0)

3)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수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수준을 정책 참여활동, 교육현장 참여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정치적 참여활동,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통수준으로 참여’부터 ‘매우많이 참여’까지의 수준은 정책 참여활동 8.3%, 교육현장 참여활동 63.6%, 사회적 참여활동 26.8%, 정치적 참여활동 7.7%, 문화적 참여활동 23.6%, 경제적 참여활동 27.1%로 교육현장 참여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참여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문화적 참여활동이 20%대로 나타났고,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수준

(단위 : 명, %)

참여도	전혀 참여 하지 않음	참여 하지 않는 편임	보통 수준 으로 참여	많이 참여 하는 편임	매우 많이 참여함	무응답	계
1. 정책 참여활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활동,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 등	5,405 (82.6)	581 (8.9)	441 (6.7)	70 (1.1)	33 (0.5)	13 (0.2)	6,543 (100.0)
2. 교육현장 참여활동 학교 동아리 활동, 학생회 자치활동, 학교 운영 과정 등에 참여	1,848 (28.2)	520 (7.9)	2,528 (38.6)	1,001 (15.3)	632 (9.7)	14 (0.2)	6,543 (100.0)
3. 사회적 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NGO활동, 자치기구 활동, 국제교류활동 참여 등	3,852 (58.9)	921 (14.1)	1,370 (20.9)	270 (4.1)	115 (1.8)	15 (0.2)	6,543 (100.0)
4. 정치적 참여활동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 정치집회 참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정치관련 의견투고, 정당활동, 1인 시위활동 등	5,437 (83.1)	588 (9.0)	388 (5.9)	77 (1.2)	37 (0.6)	16 (0.2)	6,543 (100.0)
5. 문화적 참여활동 문화행사의 기획, 공연 등 참여, 각종 문화행사 관람, 문화축제 모니터링 활동, 지역축제 기획참여 등	4,051 (61.9)	926 (14.2)	1,147 (17.5)	271 (4.1)	130 (2.0)	18 (0.3)	6,543 (100.0)
6. 경제적 참여활동 아르바이트,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로교육, 경제교육 참여 등	3,629 (55.5)	1,124 (17.2)	1,427 (21.8)	234 (3.6)	110 (1.7)	19 (0.3)	6,543 (100.0)

4) 청소년 참여활동 만족도와 참여경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19.1%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자청소년은 17.6%, 여자청소년은 20.5%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 중학교는 21.3%, 고등학교는 17.2%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2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 19.3%, '홍보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15.7%,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 12.5%로 나타났다.

표 IV-19 청소년 참여활동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무응답	계
전체		229 (4.3)	716 (13.5)	3,240 (61.1)	926 (17.5)	84 (1.6)	107 (2.0)	5,302 (100.0)
성별	남자	171 (6.3)	398 (14.7)	1,601 (59.2)	426 (15.8)	49 (1.8)	58 (2.1)	2,703 (100.0)
	여자	58 (2.2)	318 (12.2)	1,639 (63.1)	500 (19.2)	35 (1.3)	49 (1.9)	2,599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87 (3.7)	227 (9.6)	1,478 (62.7)	454 (19.2)	50 (2.1)	63 (2.7)	2,359 (100.0)
	고등학교	142 (4.8)	489 (16.6)	1,762 (59.9)	472 (16.0)	34 (1.2)	44 (1.5)	2,943 (100.0)

표 IV-20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경로

(단위 : 명, %)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경로	빈도	%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1,023	19.3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663	12.5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1,530	28.9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304	5.7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834	15.7
인터넷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286	5.4
기타	441	8.3
무응답	221	4.2
계	5,302	100.0

5) 청소년 참여활동 성취기대수준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성취기대수준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26.1%가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은 23.3%, 여자청소년은 28.9%가 기대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가 22.7%, 고등학교가 28.7%로 나타났다.

표 IV-21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성취기대수준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조금 기대하였다	아주 기대가 컸다	무응답	계
전체		407 (7.7)	1,557 (29.4)	1,846 (34.8)	1,239 (23.4)	141 (2.7)	112 (2.1)	5,302 (100.0)
성별	남자	249 (9.2)	820 (30.3)	943 (34.9)	568 (21.)	61 (2.3)	62 (2.3)	2,703 (100.0)
	여자	158 (6.1)	737 (28.4)	903 (34.7)	671 (25.8)	80 (3.1)	50 (1.9)	2,599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205 (8.7)	697 (29.5)	855 (36.2)	489 (20.7)	48 (2.0)	65 (2.8)	2,359 (100.0)
	고등학교	202 (6.9)	860 (29.2)	991 (33.7)	750 (25.5)	93 (3.2)	47 (1.6)	2,943 (100.0)

6)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성 정도

청소년 참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에 응답한 청소년은 30.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 26.2%, 여자청소년 34.5%,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28.0%, 고등학교 32.1%로, 남자청소년에 비하여는 여자청소년이, 중학생에 비하여는 고등학생이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성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보통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모름/ 무응답	계
전체		261 (4.9)	624 (11.8)	2,700 (50.9)	1,358 (25.6)	245 (4.6)	114 (2.2)	5,302 (100.0)
성별	남자	163 (6.0)	375 (13.9)	1,394 (51.6)	589 (21.8)	118 (4.4)	64 (2.4)	2,703 (100.0)
	여자	98 (3.8)	249 (9.6)	1,306 (50.3)	769 (29.6)	127 (4.9)	50 (1.9)	2,599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111 (4.7)	282 (12.)	1,240 (52.6)	564 (23.9)	96 (4.1)	66 (2.8)	2,359 (100.0)
	고등학교	150 (5.1)	342 (11.6)	1,460 (49.6)	794 (27.)	149 (5.1)	48 (1.6)	2,943 (100.0)

7) 청소년 참여활동 후의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

청소년 참여활동 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의 향상이 19.4%, 사회를 보는 시각 향상이 17.5%, 능력과 자질의 향상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청소년 참여활동 후 긍정적 변화

(단위 : 명, %)

구 분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공동체 의식이 확대되었다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문제해결/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기타	무응답	계
전체		928 (17.5)	1,031 (19.4)	734 (13.8)	357 (6.7)	2,053 (38.7)	59 (1.1)	140 (2.6)	5,302 (100.0)
성별	남자	434 (16.1)	502 (18.6)	389 (14.4)	178 (6.6)	1,093 (40.4)	35 (1.3)	72 (2.7)	2,703 (100.0)
	여자	494 (19.0)	529 (20.4)	345 (13.3)	179 (6.9)	960 (36.9)	24 (0.9)	68 (2.6)	2,599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348 (14.8)	402 (17.0)	333 (14.1)	151 (6.4)	1,019 (43.2)	28 (1.2)	78 (3.3)	2,359 (100.0)
	고등학교	580 (19.7)	629 (21.4)	401 (13.6)	206 (7.0)	1,034 (35.1)	31 (1.1)	62 (2.1)	2,943 (100.0)

청소년 참여활동 후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부시간의 부족이 13.4%, 강요된 활동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낀 경우가 10.9%로 나타났다.

표 IV-24 청소년 참여활동 후 부정적 변화

(단위 : 명, %)

구 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공부시간이 부족해졌다	강요된 활동으로 인해 불쾌감이 생겼다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생겼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기타	무응답	계
전체		353 (6.7)	708 (13.4)	576 (10.9)	465 (8.8)	2,999 (56.6)	69 (1.3)	132 (2.5)	5,302 (100.0)
성별	남자	200 (7.4)	352 (13.0)	317 (11.7)	213 (7.9)	1,514 (56.0)	39 (1.4)	68 (2.5)	2,703 (100.0)
	여자	153 (5.9)	356 (13.7)	259 (10.0)	252 (9.7)	1,485 (57.1)	30 (1.2)	64 (2.5)	2,599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143 (6.1)	251 (10.6)	253 (10.7)	161 (6.8)	1,437 (60.9)	35 (1.5)	79 (3.3)	2,359 (100.0)
	고등학교	210 (7.1)	457 (15.5)	323 (11.0)	304 (10.3)	1,562 (53.1)	34 (1.2)	53 (1.8)	2,943 (100.0)

8)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정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원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에 21.8%가 응답하였다. 청소년지도자의 지원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15.8%가 응답하였고, 부모 및 가족의 지원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24.0%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정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무응답	계
교사의 지원	368 (6.9)	834 (15.7)	2,828 (53.3)	954 (18.0)	200 (3.8)	118 (2.2)	5,302 (100.0)
청소년지도자의 지원	468 (8.8)	901 (17.0)	2,975 (56.1)	690 (13.0)	148 (2.8)	120 (2.3)	5,302 (100.0)
부모 및 가족의 지원	338 (6.4)	727 (13.7)	2,843 (53.6)	981 (18.5)	293 (5.5)	120 (2.3)	5,302 (100.0)

9) 선호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선호하는 참여활동으로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47.5%)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참여활동 18.7%, 교육현장 참여활동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참여활동은 3.1%로 6가지 참여활동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학교유형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26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참여활동

(단위 : 명, %)

		정책 참여활동	교육현장 참여활동	사회적 참여활동	정치적 참여활동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	모름/무응답	계
전체		203 (3.1)	816 (12.5)	727 (11.1)	403 (6.2)	3,105 (47.5)	1,221 (18.7)	68 (1.0)	6,543 (100.0)
성별	남자	119 (3.4)	452 (12.9)	423 (12.)	242 (6.9)	1,439 (41.0)	793 (22.6)	45 (1.3)	3,513 (100.0)
	여자	84 (2.8)	364 (12.0)	304 (10.0)	161 (5.3)	1,666 (55.)	428 (14.1)	23 (0.8)	3,030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75 (2.5)	396 (13.0)	331 (10.9)	178 (5.9)	1,487 (49.0)	532 (17.5)	37 (1.2)	3,036 (100.0)
	고등학교	128 (3.6)	420 (12.)	396 (11.3)	225 (6.4)	1,618 (46.1)	689 (19.6)	31 (0.9)	3,507 (100.0)

10)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참여한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가 14.8%,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가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이유

(단위 : 명, %)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이유	빈도	%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3,604	55.1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498	7.6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970	14.8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308	4.7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216	3.3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위해	744	11.4
기타	137	2.1
모름/무응답	66	1.0
계	6,543	100.0

11)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수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참여 수준 5단계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을 알아본 결과 1단계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 35.1%, 3단계 14.7%, 4단계 8.8%, 5단계 3.5%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에 있어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따라가는 형태 또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수준

(단위 : 명, %)

구 분		UN의 의사결정 단계					모름/무 응답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청소년에게 지시한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한다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청소년들이의견 을 제시하고, 어른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모든 의사결정을 청소년들이 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지원한다		
전체		2,444 (37.4)	2,294 (35.1)	959 (14.7)	578 (8.8)	226 (3.5)	42 (0.6)	6,543 (100.0)
성별	남자	1,310 (37.3)	1,129 (32.1)	598 (17.0)	291 (8.3)	155 (4.4)	30 (0.9)	3,513 (100.0)
	여자	1,134 (37.4)	1,165 (38.4)	361 (11.9)	287 (9.5)	71 (2.3)	12 (0.4)	3,030 (100.0)
학교 유형	중학교	989 (32.6)	1,024 (33.7)	543 (17.9)	329 (10.8)	125 (4.1)	26 (0.9)	3,036 (100.0)
	고등학교	1,455 (41.5)	1,270 (36.2)	416 (11.9)	249 (7.1)	101 (2.9)	16 (0.5)	3,507 (100.0)

12) 청소년 참여활동의 애로사항

청소년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시간 부족’이 34.2%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참여활동 방법 모름’ 20.0%, ‘참여활동 정보 부족’ 18.8%, ‘하고 싶은 참여활동 부족’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청소년 참여활동 애로사항

(단위 : 명, %)

청소년 참여활동 애로사항	빈도	%
시간이 부족하다	2,239	34.2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233	18.8
어떻게 참여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307	20.0
하고 싶은 참여활동이 부족하다	871	13.3
부모님이나 가족이 반대한다	165	2.5
학교나 선생님이 반대한다	71	1.1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459	7.0
기타	119	1.8
모름/무응답	79	1.2
계	6,543	100.0

13)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향후 청소년 참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우선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34.2%)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20.0%, '입시제도의 개선'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단위 : 명, %)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방안	빈도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2,239	34.2
학교성적이 우선시되는 입시제도의 개선	1,233	18.8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307	20.0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활동정보제공	871	13.3
학교나 선생님의 협조	165	2.5
부모님의 협조	71	1.1
기타	119	1.8
모름/무응답	79	1.2
계	6,543	100.0

5. 소결

청소년 참여활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저해요인을 파악하며,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특별회의는 0.5%,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정도의 참여율을 보였다.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도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참여활동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지원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 참여활동 후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활동이후 자신에게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시간 부족,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에 있어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따라가는 형태' 또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현재의 학교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참여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고, 교사 및 학부모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청소년 참여활동의 내용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문화적·경제적 참여활동 프로그램의 보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같이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제 5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전문가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조사 개요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3. 소결

제 5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전문가의견조사

1. 전문가의견조사 개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참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문가의견조사 실시대상은 학계, 현장, 정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학계 6명, 현장 11명, 공무원 및 국회 3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9월이었다.

의견조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1차 전문가의견조사는 최창욱·조혜영(2006년)의 전문가의견조사를 활용하여 수정의견과 추가의견을 취합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보았다. 전문가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참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참여의 문제점을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지원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셋째,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하여 찾아보았다.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역시 청소년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각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1)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4.40)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인권신장 도모’(4.30), ‘사회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인정’(4.20),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구현’(4.10), ‘청소년 다양한 역량함양 기회 제공’(4.05) 순으로 나타났다.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장 큰 청소년참여의 의의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들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V-1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 다양한 역량함양 기회 제공	4.05	0.945	5
청소년의 인권신장 도모	4.30	0.657	2
사회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인정	4.20	0.834	3
청소년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	3.60	0.821	12
청소년의 책임감 및 의무인식 함양	3.85	0.813	8
성인과 청소년의 수평적·상호적 관계 및 견제와 균형 유지	3.85	0.813	8
개방적·쌍방향적인 새로운 참여문화 형성	3.85	0.671	8
청소년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문제해결	3.75	0.851	11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문화 수용 기회	3.50	0.946	13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가능	4.00	1.124	6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40	0.681	1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기능	3.95	0.826	7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구현	4.10	0.912	4

2) 현재 청소년참여의 전반적인 문제점

전문가들은 현재 청소년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해도가 다름’(4.35),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4.30),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4.25)의 순으로 보았다.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형성, 참여의 통로가 일부 청소년으로 제한되는 경향 등이 높게 나타났었다.

표 V-2 현재 청소년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현재 청소년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순위
명목적·형식적 수준의 참여로 실질적 반영 매우 미비	4.15	0.813	4
성인과 청소년의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 형성 미흡	4.10	0.641	7
정당성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3.80	1.105	10
참여기구 특성별 참여형태나 단계 제시 못함	4.05	0.945	8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형성이 어려움	3.30	0.923	14
참여의 통로가 일부 청소년으로 제한됨	3.75	0.851	11
청소년참여의 개념, 수준 및 범위, 역할이 명확치 않음	4.15	0.875	4
지역별·시설별 청소년참여 수준의 편차가 큼	3.70	1.031	13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이해도가 다름	4.35	0.875	1
청소년참여보다 청소년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둠	4.15	0.933	4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4.30	0.657	2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	4.25	0.851	3
실무 청소년지도자의 이해부족과 업무 후순위로 인식	3.95	0.945	9
청소년에게 참여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3.75	0.786	11

3) 청소년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청소년참여의 한계와 문제점을 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 ②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 ③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 ④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지원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4.25)이 가장 큰 것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부족’(4.15)과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 부처(교육부 등)와 연계 미비’(4.15), ‘참여기구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체계 부족’(3.95)과 ‘청소년지도자의 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3.95)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표 V-3 참여기구 운영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참여기구 운영 측면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지도자의 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3.95	0.826	4
청소년지도자의 업무과중으로 참여기구 지원 미흡	3.80	0.834	7
청소년의 특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못함	3.00	0.795	14
청소년에 대한 권한·책임감 부여 부족	3.75	0.786	8
참여기구 지원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의 부족	3.45	1.050	11
각 참여기구 간 차별화 미흡	3.85	0.813	6
참여기구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체계 부족	3.95	0.826	4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	4.25	0.786	1
지역별 특성 고려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3.35	1.089	12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 부족	4.15	0.933	2
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모델 지원 미비	3.65	0.875	9
참여기구 담당 지도자는 대체로 신입직원이 담당	3.50	1.051	10
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형성 미비	3.30	0.923	13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 부처(교육부 등)와 연계 미비	4.15	0.745	2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의 파트너십 부족(역할구분 등)’(4.15),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 부족’(4.00), ‘의사결정의 공개화 및 정보공유화 필요’(3.95), ‘체계적인 참여기구 운영모델 및 운영방법 제시 미흡’(3.85) 등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V-4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	3.70	0.923	5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가까움	3.55	0.826	8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의 파트너십 부족(역할구분 등)	4.15	0.587	1
소수 주도 청소년에 의한 진행	3.70	0.801	7
의사결정의 공개화 및 정보공유화 필요	3.95	0.826	3
대표성 부족으로 참여기구 의사결정내용 반영 어려움	3.70	1.031	5
의사결정 관련 각종 회의자료 등의 관리 미흡	3.25	0.786	9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 부족	4.00	0.858	2
다양한 청소년연령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 노정	3.20	1.005	10
체계적인 참여기구 운영모델 및 운영방법 제시 미흡	3.85	0.813	4

셋째, 전문가들은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로 ‘학업 병행으로 인한 참여활동의 어려움’(3.95), ‘참여를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3.80),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 문제’(3.75), ‘참여개념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3.70),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낮은 참여율과 비효율성’(3.45)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V-5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	평균	표준편차	순위
참여개념 및 민주적 의사결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3.70	0.865	4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 문제	3.75	0.967	3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낮은 참여율과 비효율성	3.45	0.945	5
학업 병행으로 인한 참여활동의 어려움	3.95	1.191	1
참여를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3.80	0.696	2
참여청소년의 적극적인 태도 및 노력 부족	3.20	0.834	11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	3.35	1.137	8
한 명의 청소년이 다수의 참여기구에 중복 참여	3.35	1.089	8
연령문제1- 고등학생 및 대학생 위주의 참여 양상	3.50	1.100	6
연령문제2- 다양한 연령대로 소통의 어려움	3.10	1.373	12
소외계층 청소년의 참여 부족	3.55	0.945	5
참여청소년 선발 시 지연, 혈연, 학연문제 발생	3.25	0.786	10

넷째, 전문가들은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지원 측면에 있어서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4.55), ‘참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4.50), ‘성인들에게는 청소년보호 차원의 관념 상존’(4.45) 등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V-6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청소년참여의 한계와 문제점-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지원 측면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4.55	0.605	1
성인들에게는 청소년보호 차원의 관념 상존	4.45	0.605	3
인식부족으로 가정, 학교, 기관의 협조 및 지원 어려움	4.30	0.733	4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포함) 부족	4.20	0.834	5
우수사례와 성인과의 협력모델 제시 미흡	3.90	1.071	7
참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4.50	0.513	2
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저변확대 미흡	4.00	0.725	6

4)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

첫째, 전문가들은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차지’(4.60), ‘법정부적 기구임에도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미비’(4.45),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과정 미약’(4.40)과 ‘정책의제의 반복 등 합리적인 의제선정 과정 미비’(4.40), 그리고 ‘정책의제의 단순화 및 전국적 공론화 미흡’(4.20) 등을 제시하였다.

표 V-7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순위
법정부적 기구임에도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미비	4.45	0.686	2
중앙 및 지역 운영주체의 안정적 확보 미비	3.60	0.940	12
부처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4.15	0.745	6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차지	4.60	0.754	1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과정 미약	4.40	0.681	3
참여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부여 미흡	3.95	0.826	8
정책의제의 반복 등 합리적인 의제선정 과정 미비	4.40	0.821	3
정책의제의 단순화 및 전국적 공론화 미흡	4.20	0.894	5
짧은 임기로 중앙 및 지역 활동기간이 충분치 않음	3.55	0.887	13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홍보 미비	3.55	0.945	13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 미비	3.70	0.923	11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확보 미비	3.95	0.999	8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및 차별화 부족	3.80	1.105	10
특별회의와 여성가족부 참여위원회 간 차별성 부족	4.15	1.040	6

둘째, 전문가들은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흡’(4.60), ‘시군구청장과의 소통의 자리 부족’(4.15), ‘지역별 청참위 활동에 대한 편차 심함’(4.05), ‘청참위의 기관 및 시설 위탁의 문제’(4.00), 그리고 ‘담당자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3.95)의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표 V-8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참위 위원들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참여	3.60	0.821	13
청참위의 역할 및 기능이 명확하지 않음	3.80	1.152	8
청참위 운영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 부족	3.85	0.745	7
청참위 구성원의 시군구 대표성 부족	3.65	1.089	10
담당자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3.95	1.191	5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흡	4.60	0.503	1
청참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3.90	1.021	6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및 차별화 부족	3.65	0.875	10
시도 청참위와 시군구 청참위의 연계 전무	3.70	0.801	9
한 기관(시설)에서 청참위와 청운위 함께 운영	3.65	1.137	10
청참위에 대한 홍보 미비	3.55	0.945	14
청참위의 기관 및 시설 위탁의 문제	4.00	0.918	4
지역별 청참위 활동에 대한 편차 심함	4.05	0.887	3
시군구청장과의 소통의 자리 부족	4.15	0.813	2

셋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은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보장 미흡’(4.25),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부족’(4.00), ‘지역별·시설별 활동 및 지식수준의 편차가 심함’(3.95), ‘청소년과 지도자의 청운위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3.90), ‘청운위 시설운영대표자의 의지 부족’(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9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순위
위원들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3.20	1.240	14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3.55	1.099	6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보장 미흡	4.25	0.786	1
청소년과 지도자의 청운위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3.90	0.912	4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부족	4.00	0.725	2
지역별·시설별 활동 및 지식수준의 편차가 심함	3.95	1.050	3
청운위 운영을 위한 안정적 행정지원 부족	3.35	1.089	12
청운위 시설운영대표자의 의지 부족	3.60	1.095	5
청운위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3.55	1.050	6
청운위에 대한 홍보 미비	3.30	0.979	13
다양한 청운위 운영종류 세분화 및 체계화 미비	3.50	1.100	9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및 차별화 부족	3.35	1.226	12
청소년시설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인원구성 미비	3.40	0.995	11
한 기관(시설)에서 청참위와 청운위 함께 운영	3.50	1.100	9
청운위 성과평가가 양적평가에 치우치는 문제	3.55	1.234	6

5) 청소년참여기구 발전방향의 중요도

먼저, 전문가들은 청소년특별회의의 발전방향으로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4.55), ‘범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4.45), ‘참여 청소년 및 담당자의 교육·연수기회 확대’(4.40), 그리고 ‘정책의제의 단순화 및 전국적 공론’(4.35)과 ‘정책반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4.35)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V-10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의 중요도

청소년특별회의의 발전방향	평균	표준편차	순위
다양한 홍보강화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4.20	0.834	8
중앙 및 지방 전담지원기구(사무국) 강화	3.95	0.887	9
구성원의 대표성 확대	3.85	0.933	11
정책반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4.35	0.745	4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시스템 강화	4.30	0.733	6
참여 청소년 및 담당자의 교육·연수기회 확대	4.40	0.681	3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	4.55	0.686	1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	3.80	0.951	12
정책의제의 단순화 및 전국적 공론화	4.35	0.745	4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우수모델 제시	3.90	0.968	10
1 특별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4.25	0.716	7
법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	4.45	0.887	2
특별회의의 위원의 임기 연장(1년⇒2년)	3.55	1.099	13

둘째, 전문가들은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 중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4.70),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확대'(4.45), '지역 사회와 학교, 관련기관과의 연계 강화'(4.30)와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4.30), '지역별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4.20)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전문가들은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방향 중에서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청운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4.50), '청운위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4.45)와 '청소년 및 지도자의 청운위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4.45), '담당 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4.40),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정적 지지 확보'(4.30)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V-11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의 중요도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확대	4.45	0.887	2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	4.30	0.571	3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	4.70	0.470	1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대	3.70	0.865	8
지역 사회와 학교, 관련기관과의 연계 강화	4.30	0.865	3
우수 참여기구 사례 발굴 및 활동매뉴얼 개발·보급	4.00	0.725	7
지역별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4.20	0.768	5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	3.70	0.657	8
청참위의 시군구 행정기관 직접 운영	3.65	1.040	10
청참위에 대한 지역 사회 홍보강화	4.05	0.945	6
청참위 주체 지역 청소년현황조사 정례화	3.65	1.137	10

표 V-12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방향의 중요도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방향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청운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4.50	0.761	1
청운위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4.45	0.686	2
청소년 및 지도자의 청운위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4.45	0.605	2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정적 지지 확보	4.30	0.571	5
정부차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주기적 평가 실시	3.65	0.671	9
지속적 참여를 위한 지역 사회 연계체제 구축	3.90	0.641	7
담당 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4.40	0.598	4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	3.40	0.940	11
우수 청운위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 강화	4.10	0.718	6
청운위의 대표성 확보(시설이용 청소년의 대표 등)	3.65	0.988	9
청운위 정기회의에 시설운영대표자 참여 의무화	3.80	1.005	8

6)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4.65),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담당자 및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4.50), ‘참여청소년, 운영자, 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강화’(4.40)와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강화’(4.40), ‘청소년참여와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4.20)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와는 달리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6순위로 나타난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	4.15	1.089	6
참여청소년, 운영자, 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강화	4.40	0.598	3
대표성 확보와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선발과정 개선	3.90	1.119	10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	4.65	0.587	1
청소년참여와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	4.20	0.696	5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강화	4.40	0.598	3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	3.65	0.875	12
청소년참여의 활동자문기관 상설화 및 컨설팅강화	4.15	0.813	6
참여 평가체제 강화 및 피드백 장치 마련	4.15	0.745	6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3.90	0.718	10
청소년참여예산제 실시	4.00	0.918	9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담당자 및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4.50	0.688	2
청소년참여기구 동문회 결성 및 공식적 활동 유도	3.35	1.089	13

3. 소결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학계, 현장, 정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청소년 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과 의의로 보았으며, 청소년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둘째, 청소년참여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부처 간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는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이 부족한 것과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 부처(교육부 등)와 연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의 파트너십이 부족(역할구분 등)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청소년 참여의 큰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로는 학업 병행으로 인해 참여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으며,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을 청소년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특별회의의가 다소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는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고 보았으며,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은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꼽았다.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역시 청소년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각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들은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향으로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범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를 제안하였고,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를 목표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청운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으로 보고 있었고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해도의 차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제 6 장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제 6 장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이 조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참여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집단은 청소년참여기구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 상 9세부터 24세까지)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는 현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한정하였다.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자동적으로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이 되므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모집단의 규모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청소년특별회의(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3년 현재 150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사내용을 얻기 위하여 최근 몇 년간 청소년특별회의의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012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67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 당 약 20명의 청소년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약 3,300명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역시 최근 몇 년간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하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3년 현재 30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역시 20명 정도 활동한다고 볼 때 약 6,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역시 활동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표집은 청소년특별회의와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청소년운

영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청소년 특별회의 207명,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83명, 청소년운영위원회 194명 등 총 484명을 표집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조사도구는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되도록 당시에 사용된 설문문항을 준용한 것이며, 당시 설문지의 미흡한 부분만을 수정·보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심리적 특성변인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①성별(남성/여성), ②연령, ③사회경제적 배경(하/중하/중/상중/상), ④성적(하/중하/중/상중/상) 등 4개로 설정하였다. 성적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기입하도록 하였고, 연령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각각의 변인들은 모두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심리적 특성변인은 최창욱(2001)이 번안하여 사용한 Rogenberg(1965)의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 존중감 척도(SES: Self-Esteem Scales)를 사용하였다.

(2) 참여현황 관련 변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기구 참여현황과 관련하여 소속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정도, 참여 기간, 참여를 통한 성취기대수준 등 4가지 질문문항을 추출하였다. 각각의 문항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소속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한정하였다.
- ②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정도: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정도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부터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③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기간: 참여기간은 개월 수를 알아보았으며, 개방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 ④ 청소년참여기구 참여를 통한 성취기대수준: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를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부터 ‘아주 기대가 컸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3) 참여지원, 참여 동기 및 경로 관련 조사도구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지원 정도, 참여 동기, 참여경로와 관련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정도: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지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참여기구 소속기관)의 참여활동 지원 충분도, 청소년지도자의 참여활동 지원 충분도, 세대주의 참여활동 지원 충분도,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의 4가지 질문 문항을 설정하였다. 각각은 ‘매우 충분하다/만족한다’부터 ‘매우 부족하다/만족하지 못한다’까지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 ②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동기: 앞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지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동기에 대해 김경준(2004),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를 참고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 ‘청소년 권익증진’, ‘삶에 대한 가치 발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행’, ‘지역 사회 문제해결’,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의 도움’, ‘기타’로 질문하였다.
- ③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경로: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경로는 역시 김경준(2004),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 ‘선생님의 권유’, ‘청소년지도자의 권유’,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타’ 등을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다.

(4)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관련 조사도구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수준 진단, 참여 저해요인, 참여 활성화 요인 등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 ① 청소년 참여수준 진단: 현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의 참여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reseder(1997)의 청소년참여 5단계와 UN(1999)의 청소년참여 매뉴얼(Youth Participation Manuel)의 청소년참여 5단계 모델을 참고로 최창욱·조혜영(2006)의 연구에서 활용한 질문 문항을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참여 5단계는 ‘1단계: 성인이 의사결정, 청소년에게 지시’, ‘2단계: 성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의사결정’, ‘3단계: 성인과 청소년이 의사결정 공유’, ‘4단계: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하고 성인과 의사결정 공유’, ‘5단계: 청소년이 의사결정, 성인은 단순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Treseder(1997)의 청소년참여 5단계 모델인 non-participation(비참여) 단계, passive involvement(수동적인 참여) 단계, influence(영향) 단계, partnership(파트너십) 단계, self-mobilization(자기 동력화) 단계를 청소년들이 응답하기 쉽게 변형한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일반 청소년들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 ②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저해요인: 청소년 활동참여 저해요인은 김경준(2004), 최창욱·조혜영(2006)의 조사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시간 부족’, ‘정보 부족’, ‘방법 모름’, ‘하고 싶은 활동 부족’, ‘부모나 가족의 반대’, ‘학교나 교사의 반대’, ‘참여활동 성과 부족’, ‘기타’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 ③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활성화요인: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활성화 요인은 크게 2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은 김경준(2004), 청소년위원회·청소년특별회의 추진위원회(2005), 최창욱·조혜영(2006)의 조사도구를 참고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입시제도 개선’, ‘다양한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참여활동 정보제공’, ‘학교나 교사의 협조’, ‘부모의 협조’, ‘기타’ 등을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참여활성화 방안은 ‘청소년정책 의사결정 시 청소년 의견수렴의 의무화’,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참여 활성화’,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확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참여기구 운영확대’, ‘정책참여 기구 참여 인센티브 확대’, ‘기타’ 등을 제시하고 답하게 하였다.

(5) 청소년참여 효과 조사도구

청소년참여기구 참여효과 관련 조사도구는 전반적인 만족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참여 후 긍정적 변화, 참여 후 부정적 변화, 참여효과(리더십 능력)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 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전반적 만족도: 청소년참여기구 참여만족도는 ‘아주 만족한다’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② 청소년참여기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필요하다’부터 ‘전혀 필요하지 않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③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후의 긍정적인 변화: 김경준(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후의 긍정적 변화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긍정적인 변화는 ‘사회를 보는 시각 확대’, ‘공동체의식 확대’, ‘능력과 자질의 향상’,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능력 향상’, ‘변화 없음’, ‘기타’ 등으로 측정하였다.
- ④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후의 부정적인 변화: 김경준(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후의 부정적 변화 조사도구를 구성하였다. 부정적인 변화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공부시간 부족’, ‘강요된 활동으로 인한 불쾌감’,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 ‘변화 없음’, ‘기타’ 등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⑤ 참여 효과 조사도구: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활동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리더십 생활기술(Youth Leadership Life Skills)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Seevers, Dormody & Claso(1995), Seevers & Dormody(1995), Morris(1996) 등이 사용한 것으로 최창욱(2001)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조사도구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 기술, 인간관계 기술, 학습능력 기술, 조직관리 기술, 자기이해 기술, 그룹활동 기술 등 7가지 영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의 자료들은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차이검증(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위의 <표 VI-1>과 같이 나타났다.

연구를 위해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청소년이 38.2%, 여자청소년이 61.8%로 여자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형편의 경우 보통의 수준으로 산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생이 76.4%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학생(12.6%) 중학생(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적으로는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이 38.8%, 상위권, 25.4% 중위권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구로는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40.1%, 그리고 청소년참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17.1%로 나타났다.

표 V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일반적 특성		빈 도	백분율
변 수 명	구 분		
성별	남 자	185	38.2
	여 자	299	61.8
가정형편	못산다	49	10.1
	보 통	356	73.6
	잘산다	79	16.3
학력	중학생	42	8.7
	고등학생	370	76.4
	대학생	61	12.6
	학교 안 다님	11	2.3

일반적 특성		빈 도	백분율
변 수 명	구 분		
학교성적	하위권	59	12.2
	중위권	114	23.6
	중·상위권	188	38.8
	상위권	123	25.4
참여기구	청소년특별회의	207	42.8
	청소년참여위원회	83	17.1
	청소년운영위원회	194	40.1
합 계		484	100.0

2)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참여 실태

(1) 참여정도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정도를 ①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②소극적으로 참여한다, ③보통이다, ④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2>와 같이 나타났다.

표 VI-2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정도

구 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1) 청소년특별회의	206	3.94	.948	1.474	.230
2) 청소년참여위원회	82	3.78	.817		
3) 청소년운영위원회	194	3.98	.896		
전 체	482	3.93	.907		

조사대상자의 참여정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93점으로 전반적으로 참여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참여기구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참여경로

청소년참여기구 및 학교급별 각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경로는 <표 VI-3>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별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 경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홍보 및 게시판 공고 등의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의 각각 28.0%,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참석한 청소년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3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경로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14.5	3	16.9	3	32.0	1	21.9	2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9.2	6	9.6	6	10.8	4	9.9	5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20.8	2	20.5	2	4.1	6	14.0	4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13.0	5	14.5	4	25.8	2	18.4	3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28.0	1	25.3	1	20.6	3	24.6	1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13.5	4	10.8	5	5.2	5	9.7	6
기타	1.0	7	2.4	7	1.5	7	1.4	7
전체	100.0	-	100.0	-	100.0	-	100.0	-

(3) 참여 동기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VI-4>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별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 동기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 모두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각각 52.7%, 66.3%, 그리고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참여하였다는 답이 각각 24.6%, 15.7%, 그리고 7.7%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 VI-4 청소년참여기구별 활동 참여 동기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52.7	1	66.3	1	74.7	1	63.8	1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24.6	2	15.7	2	7.7	2	16.3	2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6.3	4	4.8	3	5.7	3	5.8	3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4.3	5	3.6	4	2.6	6	3.5	5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8.2	3	3.6	4	1.5	7	4.8	4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1.9	6	3.6	4	4.1	4	3.1	6
기타	1.9	6	2.4	7	3.6	5	2.7	7
전체	100.0	—	100.0	—	100.0	—	100.0	—

(4) 성취기대수준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 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활동 후 성취기대수준에 대해 ①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②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③보통이다, ④조금 기대하였다, ⑤아주 기대가 컸다,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참여기구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5>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4.01점으로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 참여기구별 성취기대수준 비교

구 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206	4.05	1.806	.165
	2) 청소년참여위원회	82	4.12		
	3) 청소년운영위원회	193	3.92		
	전 체	481	4.01		

참여기구별로 비교한 결과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간에 성취기대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참여기간

각 참여기구별로 청소년참여기구의 참여기간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 VI-6>과 같이 나타났다.

표 VI-6 청소년참여기구의 참여기간

구 분		빈도 (명)	평균 (개월)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207	13.90	13.14742	12.699	.000
	2) 청소년참여위원회	83	12.71	10.72896		
	3) 청소년운영위원회	194	20.47	17.86134		
	전 체	484	16.33	15.24466		

각 참여기구별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20.47개월로 가장 길게 참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12.71개월로 중간, 그리고 청소년특별회의가 13.9개월로 가장 짧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참여 횟수

각 참여기구별로 최근 1년간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 VI-7>과 같이 나타났다.

표 VI-7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횟수

구 분		빈도 (명)	평균 (회)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194	10.44	10.480	22.776	.000
	2) 청소년참여위원회	77	9.16	5.532		
	3) 청소년운영위원회	184	18.28	16.621		
	전 체	455	13.39	13.402		

각 참여기구별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가 18.28회로 가장 많이 참여, 다음으로 청소년특별회의가 10.44회,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9.16회로 가장 적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 회의 및 활동 시간

각 참여기구별로 1회 평균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나 활동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 VI-8>과 같이 나타났다.

표 VI-8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 및 활동 시간

구 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202	4.75	1.739	1.195	.303
	2) 청소년참여위원회	83	3.67	1.308		
	3) 청소년운영위원회	192	4.79	9.048		
	전 체	477	4.58	5.882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에 평균 4.58시간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구별로 비교한 결과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간에 성취기대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9) 청소년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각 참여기구 별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참여기구의 위원 구성에 대해 있는 대로 표시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VI-9 청소년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구 분		빈도	백분율
학교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청소년을 일정한 비율로 구성	1) 청소년특별회의	105	56.5
	2) 청소년참여위원회	44	23.7
	3) 청소년운영위원회	37	19.9
	전 체	186 ^a	100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1) 청소년특별회의	160	41.8
	2) 청소년참여위원회	59	15.4
	3) 청소년운영위원회	164	42.8
	전 체	383 ^b	100
특정분야에 특기나 재능이 있는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	1) 청소년특별회의	4	33.3
	2) 청소년참여위원회	0	0
	3) 청소년운영위원회	8	66.7
	전 체	12 ^c	0

주: N=581, a= 38.43%, b = 79.13%, c = 2.48%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56.5%로 학교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청소년을 일정한 비율로 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19.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거나 특정분야에 특기나 재능이 있는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형태가 각각 42.8%,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0) 청소년참여기구에서 담당하는 활동

첫째,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이 담당하는 활동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반영 활동’(3.92), ‘청소년 행사 기획 및 운영’(3.17), ‘청소년 기관 및 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활동’(3.08) ‘지역 사회 문화 활동’(3.05),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의견 반영활동’(3.0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반영활동’(3.64), ‘청소년 행사 기획 및 운영’(3.23)과 ‘지역 사회 문화 활동’(3.23), 그리고 ‘청소년기관 및 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활동’(3.05)의 순으로 청소년 담당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 청소년참여기구에서 담당하는 활동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 위원회		전체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백분율	순위
청소년 행사 기획 및 운영	3.17	2	3.23	2	3.76	1	3.42	2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반영활동	3.92	1	3.64	1	3.04	7	3.52	1
청소년인권옹호활동	2.77	7	2.69	8	2.59	8	2.66	8
지역 사회 문화 활동	3.05	4	3.23	2	3.54	4	3.28	5
봉사활동	2.51	8	2.84	7	3.30	5	2.89	7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	3.00	6	2.88	6	3.76	1	3.29	4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의견 반영활동	3.05	4	3.11	5	3.64	3	3.30	3
청소년기관 및 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활동	3.08	3	3.05	4	3.14	6	3.10	6

셋째,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행사 기획 및 운영’(3.76)과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3.76)을 가장 많이 담당하였고, ‘청소년시설 운영관련 의견 반영활동’(3.64), ‘지역 사회 문화활동’(3.54) 등의 순으로 담당하는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자, 부모의 지원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자, 부모의 지원은 세 가지 청소년참여기구가 모두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 ‘청소년지도자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행정기관(참여기구 소속기관)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그리고 ‘부모 또는 세대주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의 순서대로 지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자, 부모의 지원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평균			
행정기관(참여기구 소속기관)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3.42	3.70	3.23	3.39
청소년지도자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3.84	3.99	3.77	3.84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	4.05	4.29	3.93	4.04
부모 또는 세대주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3.29	3.38	3.20	3.27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참여활동 결과

(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수준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수준을 UN등에서 분류한 1단계에서 5단계에 따라 ① 1단계: 어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청소년에게 지시한다, ② 2단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한 후 의사결정을 한다, ③ 3단계: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④ 4단계: 청소년들이 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어른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⑤ 5단계: 모든 의사결정을 청소년들이 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지원한다. 로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12>과 같이 나타났다.

표 VI-12 청소년 참여수준

구 분		빈도 (명)	평균(단계)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207	2.01	.935	1.863	.156
	2) 청소년참여위원회	83	1.92	.900		
	3) 청소년운영위원회	194	2.13	.923		
	전 체	484	2.04	.926		

조사대상자의 참여정도는 전체 5단계에서 전체 평균 2.04로 전반적으로 참여 수준이 중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참여기구별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VI-13>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별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36.4%, 34.9%, 그리고 33.5%로 '학교 성적이 우선시되는 입시제도의 개선'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32.5%),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5.0%)의 순서대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5.3%, 26.6%),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18.1%, 18.1%)의 순서대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3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32.5	2	18.1	3	18.1	3	24.3	2
학교성적이 우선시되는 입시제도의 개선	36.4	1	34.9	1	33.5	1	35.0	1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5.0	3	25.3	2	26.6	2	21.4	3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11.7	4	14.5	4	15.4	4	13.6	4
학교나 선생님의 협조	3.4	5	4.8	5	4.3	5	4.0	5
부모님의 협조	0.5	6	0.0	7	0.5	7	0.4	7
기타	0.5	6	2.4	6	1.6	6	1.3	6
전체	100.0	-	100.0	-	100.0	-	100.0	-

3)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참여 결과

(1) 전반적인 참여만족도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정도에 대해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만족함, ⑤ 아주 만족함,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참여기구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14>과 같이 나타났다. 참여기구별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운영위원회보다 조금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VI-14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구 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207	3.86	.807	2.451	.087
	2) 청소년참여위원회	83	3.87	.777		
	3) 청소년운영위원회	188	3.70	.772		
	전 체	478	3.80	.791		

(2) 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하였던 청소년들이 느끼는 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필요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필요하다, ⑤아주 필요하다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참여기구별로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15>와 같이 나타났다.

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4.5점으로 나타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5 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정도 비교

구 분	빈도 (명)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참여기구별	1) 청소년특별회의	207	4.61	5.227	.006
	2) 청소년참여위원회	83	4.42		
	3) 청소년운영위원회	186	4.42		
	전 체	476	4.50		

(3) 참여 후 긍정적 변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후 청소년 자신에게 일어난 긍정적 변화로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었는지,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는지,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는지,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자부심이 확대되었는지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각 긍정적 변화 중에서 청소년참여기구의 유형에 따라 참가 청소년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항목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16>과 같이 나타났다. 세 가지 청소년참여기구에 각각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었다’와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는 문항이 크게 느낀 변화의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그 이외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등이 중요한 긍정적 변화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한 청소년의 경우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I-16 청소년참여기구별 활동 후 긍정적 변화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60.9	1	61.4	1	29.8	1	48.7	1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	18.4	2	24.1	2	28.7	2	23.4	2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5.8	4	6.0	4	21.8	3	12.1	4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13.5	3	8.4	3	18.1	4	14.4	3
기타	1.4	5	0.0	5	1.6	5	1.3	5
전체	100.0	—	100.0	—	100.0	—	100.0	—

(4) 참여 후 부정적 변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경험 후 부정적 변화에 대하여 참가청소년들의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대, 공부시간의 부족, 강요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쾌감 생김,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여 허탈감 생김 등 4개 문항을 부정적 변화의 문항으로 선정하여 각 문항에 대해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부정적 변화 항목의 순위를 청소년참여기구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VI-17>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에 참가하였던 청소년 모두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생겼다', '공부시간이 부족해졌다'는 항목을 각각 부정적 변화의 1, 2순위로 꼽았다.

표 VI-17 청소년참여기구별 활동 후 부정적 변화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19.0	3	8.4	5	13.4	4	15.0	4
공부시간이 부족해졌다	22.9	2	30.1	2	34.4	2	28.7	2
강요된 활동으로 인해 불쾌감이 생겼다	4.9	5	9.6	4	7.5	5	6.8	5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생겼다	37.1	1	32.5	1	31.2	1	34.0	1
기타	16.1	4	19.3	3	13.4	3	15.6	3
전체	100.0	—	100.0	—	100.0	—	100.0	—

4)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청소년참여기구 장애요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참여 시 제약이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간 부족, 활동정보 부족,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선호하는 활동 부족, 부모의 반대, 학교의 반대,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의 정책반영 미비 등 7개의 문항에 대해 ①매우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의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각 청소년참여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 따라 청소년참여 시 제약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각 항목들의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VI-18>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참여 시 제약이 되는 문제점으로 '참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의 정책반영 미비', '시간 부족', '활동정보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경우 '시간 부족',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경우 역시 '시간 부족'이 청소년참여 시 제약이 되는 문제점의 가장 높은 순위로 제시되었고, '참여 활동의 정보 부족', '참여활동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18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 시 어려움**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백분율	순위
시간이 부족하다	21.4	2	25.3	1	28.7	1	24.9	1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8.9	3	24.1	2	20.2	2	20.3	2
어떻게 참여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7.0	4	20.5	3	13.3	3	16.1	4
하고 싶은 참여활동이 부족하다	5.3	6	6.0	5	12.2	4	8.2	5
부모님이나 가족이 반대한다	2.4	8	0.0	8	5.3	6	3.1	8
학교나 선생님이 반대한다	7.3	5	3.6	7	4.3	8	5.5	6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25.2	1	15.7	4	11.2	5	18.0	3
기타	2.4	7	4.8	6	4.8	7	3.8	7
전 체	100.0	—	100.0	—	100.0	—	100.0	—

(2) 청소년참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각 청소년참여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 따라 청소년참여 시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각 항목들의 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VI-19>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3.34, 3.14)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 참가 청소년은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3.15),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임.’(3.14)의 순서대로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각 참여기구 조직 간 차별화 미흡’(3.1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보임.’(2.99)의 순으로 나타내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참가 청소년들은 이와 달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보임.’(3.18)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고,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3.12), ‘체계화 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3.09)을 다음 문제로 생각하였다.

표 VI-19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지도자의 전문적 자질 부족 및 업무 과중	2.38	7	2.12	7	2.46	7	2.37	7
청소년의 특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못함	2.71	6	2.87	5	2.67	6	2.73	6
청소년에 대한 권한·책임감부여 부족	2.83	5	2.47	6	2.79	5	2.80	5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	3.15	2	2.86	4	3.12	2	3.90	2
각 참여기구 조직간 차별화 미흡	3.09	4	3.11	2	2.99	4	3.05	4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3.34	1	3.14	1	3.09	3	3.21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보임	3.14	3	2.99	3	3.18	1	3.41	1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의 측면을 세 가지 청소년참여기구에 참가한 청소년 모두 '학업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였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참가 청소년은 다음 문제로 '낮은 참여율, 비효율성 등의 문제'(3.27, 3.46)를 나타내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참가 청소년들은 '청소년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 또는 새로운 활동 방안의 모색 미흡'하다는 응답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표 VI-20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의 측면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참여 개념 이해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부족	2.91	7	2.91	5	2.85	5	2.88	5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 문제	2.64	9	2.33	9	2.62	8	2.58	9
낮은 참여율, 비효율성 등의 문제	3.27	3	3.25	4	3.46	3	3.34	3
학업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3.66	1	3.77	1	3.60	1	3.65	1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	3.44	2	3.58	2	3.55	2	3.51	2
청소년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 또는 새로운 활동 방안의 모색 미흡	3.25	4	3.40	3	3.18	4	3.25	4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	3.04	5	2.82	6	2.70	6	2.87	6
다수의 참여기구 중복 참여 문제	2.72	8	2.72	7	2.50	9	2.63	8
참여 연령이 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다양한 연령대 분포가 아님	2.93	6	2.59	8	2.66	7	2.76	7

4)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1)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각 청소년참여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 따라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VI-20>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 VI-21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구 분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체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 강화	4.30	1	4.28	1	4.14	1	4.24	1
참여청소년, 운영자, 지도자, 담당자 등의 지속적 교육 및 연수	3.90	8	3.73	9	3.88	7	3.86	8
대표성 확보와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및 참여청소년 선발과정의 개선	4.03	5	3.92	8	3.99	3	4.00	6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	4.13	4	4.01	6	3.95	4	4.04	5
청소년참여와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	4.25	2	4.11	2	3.94	6	4.10	3
참여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4.25	2	4.08	3	3.94	6	4.12	2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	4.13	4	4.01	4	4.05	2	4.08	4
청소년참여의 활동자문기관 상설화 및 컨설팅 강화	3.93	7	3.98	7	3.85	8	3.91	8
참여 평가체제 강화 및 피드백 장치 마련	4.10	5	4.01	4	3.96	4	3.99	7

5) 청소년참여효과에 대한 분석

(1) 성별에 따른 청소년 참여효과

성별에 따른 자아 존중감 및 리더십 생활기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아래의 <표 VI-21>과 같다.

표 VI-22 성별에 따른 청소년 참여효과

변인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도
자아 존중감	남	182	33.74	3.494	1.264 (df=478)	.207
	여	298	33.34	3.244		
리더십생활기술	남	173	115.694	14.87	1.547 (df=463)	.123
	여	292	113.67	12.839		

개인관련 변인 및 청소년 참여관련 변인들과 자아 존중감, 그리고 리더십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VI-22>와 같다.

개인관련 변인들 중 연령($\gamma=.137$), 경제적 배경($\gamma=.155$), 성적($\gamma=.201$), 참여관련 변인들 중 참여정도($\gamma=.230$), 성취기대수준($\gamma=.237$), 그리고 자아 존중감($\gamma=.464$)이, 리더십생활기술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p<.01$).

이는 개인변인 중에서 나이가 많고, 가정경제수준, 성적이 높을수록 리더십능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하며, 참여관련변인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참여 시 참여를 통한 긍정적 효과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리더십 능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 존중감수준이 높을수록 리더십능력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표 VI-23 개인변인, 참여관련변인, 자아 존중감, 리더십능력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1. 연령								
2. 경제적 배경	-.137**							
3. 성적	-.044	.154**						
4. 참여정도	.035	.154**	-.090*					
5. 성취기대수준	.028	-.009	.038	.105*				
6. 참여기간	.199**	.012	-.152**	.171**	-.080			
7. 자아 존중감	.007	.116*	.147**	.117*	.059	-.006		
8. 리더십생활기술	.137**	.155**	.201**	.230**	.196**	-.005	.464**	

** $p < .01$, * $p < .05$

개인변인 중 연령, 성적, 경제적 배경, 자아 존중감과 참여관련변인 중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참여기간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VI-23>과 같다.

리더십 생활기술을 예측하는 데 있어 자아 존중감, 참여정도, 연령, 성취기대수준, 성적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은 리더십생활기술의 29.8%를 설명해 주었다.

표 VI-24 개인변인, 참여관련변인 및 자아 존중감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변 인	β (표준화)	R2(adj-R2)	F
자아 존중감	.400***	.309(.298)	28.739***
참여정도	.160***		
연령	.146***		
성취기대수준	.137**		
성적	.128**		
참여기간	-.027		
경제적 배경	.079		

** $p < .01$, *** $p < .001$

3. 소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세 가지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위원 48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참여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홍보 및 게시판 공고 등의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참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 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활동 후 성취기대수준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대하는 수준에서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구별로 차이는 나지 않았다.

셋째,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이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했으며,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하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 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이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이 보통 수준이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활동 후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 공부시간의 부족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참여기구의 장애 요인으로서는 시간 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었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은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한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의 측면에서는 학업 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참여기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 따라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높은 참여도와 성취기대수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리더십능력수준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 참여활동이 청소년들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 7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1.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기본방향
2.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정책
영역과 과제
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세부정책과제

제 7 장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이 장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정책영역,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6장까지 제시한 문헌연구 분석결과, 국제 동향과 사례분석 결과,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1.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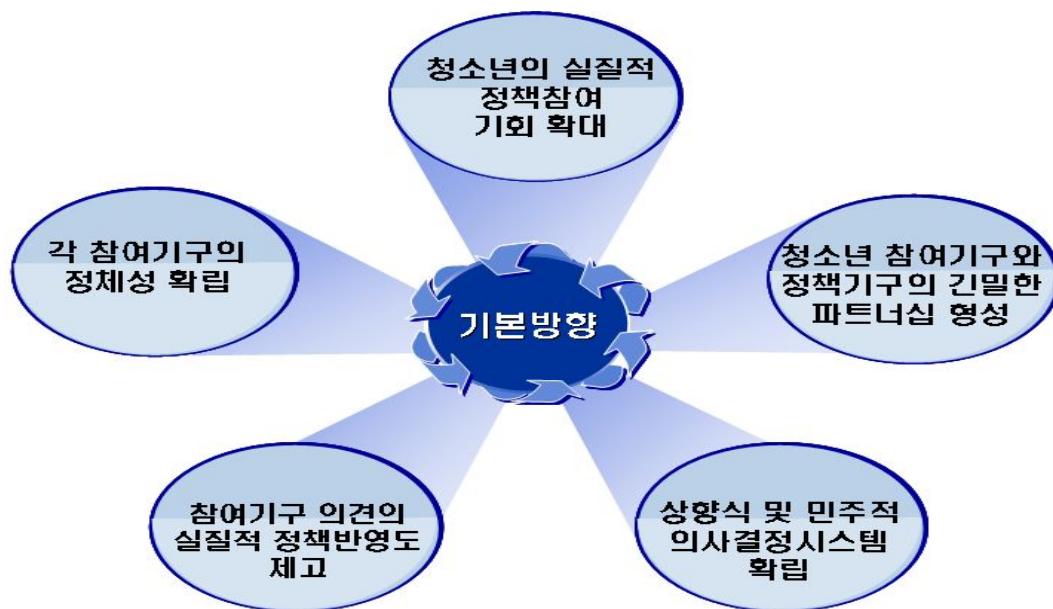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공식적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순응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도 각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 의사결정 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긴밀히 하여 청소년참여기구에서 논의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참여기구 내의 의사결정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결과, 국제 동향, 청소년·청소년전문가·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①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②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③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④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⑤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를 추구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의 활성화는 잘 운영되고 있는 정예 청소년참여기구만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하되,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책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 온 청소년참여기구들의 유사, 중복성을 뛰어넘어 각 청소년참여기구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게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는 입법취지와 연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림 VII-1】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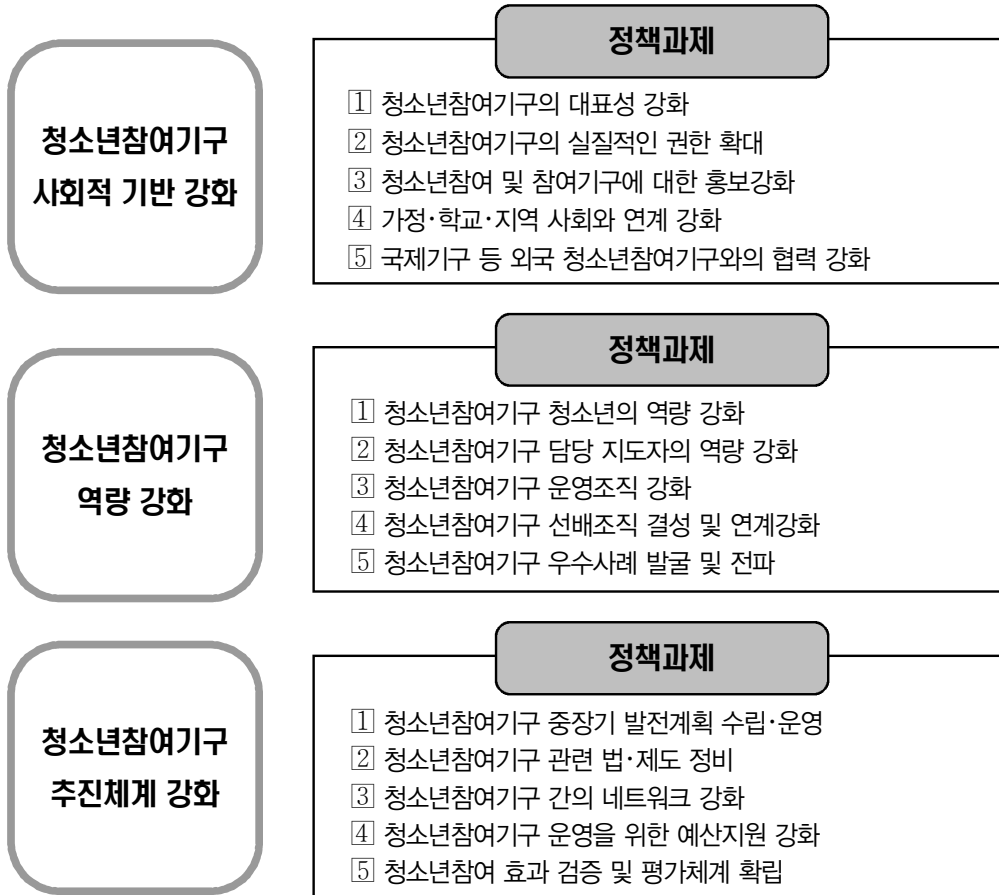
셋째, 청소년참여기구와 실제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부조직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정부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보다 긴밀한 정책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청소년참여기구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기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도 한정된 정책반영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이 공식적 통로를 통해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참여기구 내에서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일부 청소년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세련되지는 않아도 전체 청소년들의 의견이 결집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전환하여야 한다.

2.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정책 영역과 과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틀을 3가지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청소년참여기구의 사회적 기반 강화, 둘째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셋째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이다.



【그림 VII-2】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세부정책과제

1)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1)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가 설립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이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식적인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기구로 정부에서 특별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특별회의의 대표성 확보

2009년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이후 청소년특별회의는 따로 지방조직을 두지 않고 있다.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자동으로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시도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잘 구성·운영함으로써 대표성을 획득할 수 있다.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속한 시군구 대표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이 방식은 현재 경상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방식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경상북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천방식(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 단체장, 학교장 추천 등)과는 달리 각 시군에서 추천한 청소년대표와 공개 선발된 청소년들이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경상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23개 시군에서 1명씩 추천받아 선발하고 그 외 7명의 청소년을 공개선발로 뽑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들의 대표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군구의 추천과 공개선발의 과정은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들의 대표성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에 대한 자문과 모니터링, '청소년

년 꿈대회'등 자체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별회의와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특별회의가 범부처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음으로 인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비슷한 위원회도 참여해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공식적인 멤버로 참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존재하거나, 청소년특별회의 안에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분과를 두어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특별회의가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혹은 청소년특별회의 의장과 부의장, 지역회의 의장 등을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다양한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직능단체, 청소년 NGO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 각종 소수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청소년활동을 다수 수행한 경험자 또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유경험자들에게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자리를 일부 할당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청소년특별회의의 연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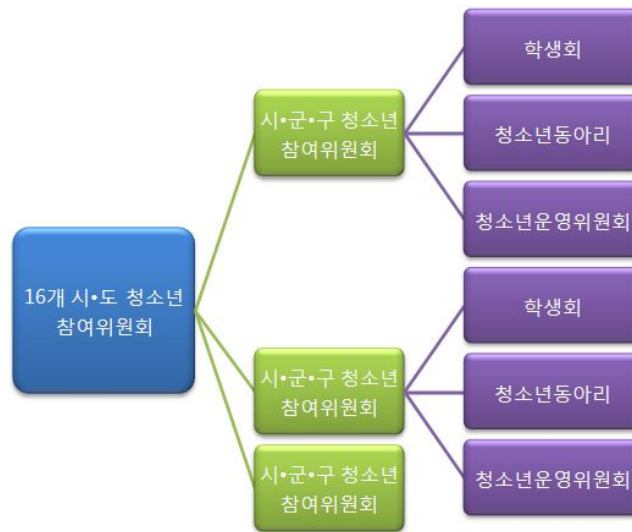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은 시도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역회의가 되고, 청소년특별회의는 시도청소년참여위원회, 공개모집 청소년, 청소년직능단체 대표, 청소년 비정부기구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 안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은 [그림 VII-3]과 같다.



【그림 VII-3】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도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현재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청소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다양한 청소년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청소년동아리 대표, 학생회 대표 등이 참여하여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정한 비율의 선배들을 연임할 필요도 있다.



【그림 VII-4】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도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대표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다양한 청소년동아리들이 존재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인근 학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개인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는(자율적 이용공간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동아리 대표, 인근 학교 대표, 개인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공모에 의해 선출된 자, 기존 위원들 중 연임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특별회의의 대표성 확보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2014년	실태조사 및 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발굴
2015년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시범실시		운영지침 송부 및 설명회 개최(상반기), 운영
2016년	확대실시 및 운영현황 점검		운영현황 점검 (청소년운영위원회 우수사례 시상 요건으로 포함)
2017년	운영현황 점검		운영현황 점검
2018년	운영현황 점검		운영현황 점검
비고	동시 추진 ※ 예산(안): 실태조사 및 연구 3,000만원, 매뉴얼개발 2,500만원, 설명회 및 워크숍 1,500만원		여성가족부, 수련시설협회 등과 협의 ※ 예산(안): 실태조사 2,000만원

(2)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① 배경

초기 출발과정에서 청소년특별회의는 범부처에 걸친 청소년정책의 설정·추진·점검을 목표로 하였고, 백악관청소년회의를 모델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체의 성격을 보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에 정책협의를 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장들에 대한 자문 및 협의체 성격이었다. 하지만 행정수반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과의 협의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일부 모범적인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다수 참여기구들은 그렇지 못하다. 즉, 청소년참여기구가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특별회의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특별회의는 최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에서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라는 명칭으로 명명되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²³⁾ 그러나 실제 청소년특별회의의 법제화 과정에서 대통령의 명칭이 생략되었으며(김영지, 2006), 초기 국무총리 주재, 장관 주재의 회의로 그 의미와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 이에 청소년특별회의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부분 또한 일부 부처에 해당하는 주제로 국한되어 실질적인 청소년 관련 정책의제가 설정되기에 어려운 측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초 청소년특별회의 주재를 대통령으로 정한 이유는 각 부처 간 이해 조정 등 통합적인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과 추진, 점검을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정책과제는 단지 반영 가능 / 미반영만을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 점검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과 전문가가 위원이 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식 회의체로서 작동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법에 그 명칭이나 구성, 역할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 대부분을 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 행사 기획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본래 역할은 근거법령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 · 심의, 정책 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의견을 보장하는 조치의 하나로서 역할 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의 보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기구 중 법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그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 · 심의 및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조항에서 ‘청소년운영위원

23) 문화관광부(2013). 청소년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 · 연구 -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 · 운영을 중심으로

회의 구성·운영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인 표현을 통해 타 청소년참여기구에 비해 법적인 권한을 보장받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축제나 영상·홍보기획단, 고객모니터링 수행기구, 자원봉사단 등의 활동 형태로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련시설의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참여할 시설 운영의 범위를 각 시설이나 단체의 정관·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시설과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지위 수준과 역할의 범위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순 프로그램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시설의 중·장기 계획이나 예산, 시설운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특별회의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2014년	대표성 확보 노력 실적의 체계적인 수집 및 분석을 통한 홍보		대표성 확보 노력 조례 및 업무지침 등에 명시
2015년	BH와 협의	우수사례 전파 및 시도지사와 협의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전국 규모에서 VIP 참석 유도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시도차원에서 시도지사 참석 유도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3)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① 배경

전문가의견조사나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청소년참여나 참여활동(청소년참여기구 활동 포함)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일반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해서는 79.0%, 청소년참여위원회는 74.7%, 청소년운영위원회는 50.9%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세계동향을 보더라도 청소년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청소년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세계적인 흐름은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세부정책과제

- 대중매체,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강화

청소년참여 및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대중매체를 이용한 전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005년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지상파(KBS) 중계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어느 정도 청소년참여 및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공헌하였다. 대중매체와 연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위원구성 등의 시작부터 본회의 및 평가회의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청소년참여포털의 활성화

청소년활동종합정보서비스와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참여 및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용 청소년정책 안내수첩 제작·배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법적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이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관련 기관, 시설, 단체들이 공동으로 홍보자료를 수첩(가칭 청소년수첩)으로 만들어 만 9세가

되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배포하는 것이다. 이 수첩에는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및 상담, 복지프로그램, 청소년활동 및 상담기관 등을 망라하여 청소년이 시작되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 몇 년 후,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대중매체,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강화	청소년참여포털의 활성화	청소년용 청소년정책 안내수첩 제작·배포
2014년	공익광고, 이미지광고 등을 통한 TV, 신문 활용 홍보 및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 강화	청소년참여포털 점검 및 활성화 계획 수립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2015년		예산확보	제작 및 보급
2016년		콘텐츠 강화 (참여기구 청소년 중점)	제작 및 보급
2017년		콘텐츠 강화 (일반 청소년으로 확대)	제작 및 보급
2018년		콘텐츠 강화 (부모, 교사로 확대)	제작 및 보급
비고	※ 예산(안): 광고 및 홍보: 20,000만원	※ 예산(안): 각 년도 25,000만원씩	※ 매년 만 9세 청소년이나 편의상 초4학년에게 보급 ※ 예산(안): 2015년 초등학교 4학년생은 약 42만 명으로 추산됨. 42만 명×2,000원=8.4억

(4)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역 사회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의 지역 사회변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② 세부정책과제

- 가정·학교의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의 활동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에서는 학사일정 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소개해 주어야 한다.

- 지역 사회와 청소년참여기구의 연계

지역 사회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장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때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가정·학교의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지역 사회와 청소년참여기구의 연계
2014년	가정 및 학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2015년	설명회 개최, 홍보실시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 강화
2016년	설명회 개최, 홍보실시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 강화
2017년	설명회 개최, 홍보실시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 강화
2018년	설명회 개최, 홍보실시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 강화
비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 ※ 예산(안): 설명회 각 년도 500만원씩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5)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① 배경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에서 청소년참여기구와 비슷한 청소년참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참여분야에서 UN 공공행정상을 받는

등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각 나라의 장점들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기구에 대한 청소년위원의 참여는 청소년참여기구가 아닌 새로운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추천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참여기구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몰이해이며, 그 참가자가 한국의 청소년참여기구를 대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의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국제기구에서 행해지는 청소년참여 관련 회의에 청소년대표 파견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참여기구 중 청소년특별회의에 국제협력 관련 분과를 두고, 그 분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제 청소년참여대회 개최

2012년 우리나라는 청소년참여 분야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다. UN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 정책을 하나의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칭「국제 청소년참여대회」를 개최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의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	국제 청소년참여대회 개최
2014년	청소년특별회의에 국제분과 신설 및 각종 국제기구 회의에 대한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2015년	UN, UNESCO, UNICEF, EU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조성 및 참여기구 청소년 파견 지원	예산확보 및 개최주기(매 5년 등) 설정
2016년	참여기구 청소년 파견 지원	제1회 국제 청소년참여대회 개최
2017년	참여기구 청소년 파견 지원	—
2018년	참여기구 청소년 파견 지원	—
비고	※ 예산(안): 기존 국제교류 예산 활용	개최주기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최 ※ 예산(안): 국제참여대회 1식 3억

2)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1)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① 배경

청소년전문가들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학업 병행으로 인한 참여활동의 어려움, 진학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 참여개념이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몰이해, 비자발적 참여 등을 들었다. 학업이나 진학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참여청소년들의 참여개념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과정의 이해 등은 다양한 역량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청소년참여기구 참여는 역시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의의, 의사소통기술, 의사결정방법, 회의진행방법 등이 될 것이다. 연수방식은 중앙연수, 각급 참여기구별 연수, 지역 사회별 연수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자문기관 상설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기구를 잘 이해하고,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관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각 참여기구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려면 상설 자문기관이 필요한데 이는 청소년참여기구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기관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컨설팅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그 내용들을 참여기구 청소년들에게 컨설팅해 줄 필요가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자문기관 상설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컨설팅 강화
2014년	연수 수요파악 및 계획수립	계획수립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봉사부에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 자문 및 컨설팅사업 신설	
2015년	상하반기 연수실시 (시도별 및 참여기구별 종합연수 각 1회)	자문 및 컨설팅 실시	
2016년	상하반기 연수실시 (시도별 및 참여기구별 종합연수 각 1회)	자문 및 컨설팅 실시	
2017년	분기별 연수실시 (시도별 및 참여기구별 종합연수 각 2회)	자문 및 컨설팅 실시	
2018년	분기별 연수실시 (시도별 및 참여기구별 종합연수 각 2회)	자문 및 컨설팅 실시	
비고	※ 예산(안): 기존예산 활용	※ 예산(안): 자문 및 컨설팅 업무 관련 예산 (17개 시도 × 2,000만 원=3억4천만 원)	

(2)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 및 공무원,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청소년참여기구를 제외하면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 및 공무원은 거의 초임자가 많고 있다. 이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효율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지도자가 맡게 되더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매뉴얼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확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는 전문적

인 지식과 기술이 담보되지 않고는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기초 지식과 기술들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참여의 국내외적 동향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들 연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청소년참여기구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는 청소년 분야에서 서로 맡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지도자의 사기를 양양하기 위하여 우수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지도자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에 대한 연수 및 컨설팅 확대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청소년참여기구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014년	전문연수과정 시범운영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청소년참여기구 유공자 발굴 및 포상
2015년	전문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수정보완 및 보급	
2016년	전문연수과정 운영	수정보완 및 보급	
2017년	전문연수과정 운영	수정보완 및 보급	
2018년	전문연수과정 운영	수정보완 및 보급	
비고	※ 예산(안): 별도 예산 필요내역 없이 청소년 지도자연수센터 활용	※ 예산(안): 매뉴얼 개발 1,000만원 보급 3,000만원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3) 청소년참여기구 지원조직(가칭 청소년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중앙 지원조직이 각각 다르거나 지역조직이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와 연계되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와 연계되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탁기관에서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② 세부정책과제

-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정책 총괄운영 부서 신설

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참여관련 정책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과와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나누어 맡고 있다. 이를 통합하여 여성가족부 내 청소년참여정책을 통합·운영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 부서에서 청소년인권 분야도 다루어 청소년인권과 참여 전문부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과거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참여인권과, 청소년권리과 등의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 가칭 「청소년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

각 청소년참여기구가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 청소년참여를 총괄하여 지원하는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청소년참여기구의 운영내용도 프로그램 위탁 차원이 아닌 안정적 조직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청소년참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특별회의 사무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사무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하나의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센터의 설립이 어려울 경우 그 기능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정책 총괄운영 부서 신설	가칭 「청소년참여지원센터」 설립·운영
2014년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검토	설치기준 마련
2015년	부서 신설 또는 관련 부서 통합	설치준비
2016년	운영	설치
2017년	운영	사업수행
2018년	운영	사업수행
비고	예)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의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지역 사회변화 프로그램 업무와 청소년 활동진흥과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업무 통합 등 ※ 예산(안): 별도예산 필요내역 없음	센터 신규 설립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관련 역할 부여 ※ 예산(안): 별도예산 필요내역 없이 앞서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하여 운영

(4)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 결성 및 연계강화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을 결성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청소년참여기구의 중·장기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참여기구의 특성상 임기가 만료되거나 청소년 연령 범위 초과, 취업·사회진출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제한된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참여기구 운영의 노하우를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이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선배조직을 결성하고 선후배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했던 선배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워크숍 등이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각 참여기구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쳐 청소년참여기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선배조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참여기구가 보다 연속적으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청소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지원조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성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참여기구 선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유럽 청소년의회 선배 활용의

경우와 같이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선배들을 발굴하여 매해 본회의의 안건을 제안하거나 자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데이터베이스화

청소년참여기구 출신 선배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시작년도-지역-기구명-번호 등으로 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선배들을 관리할 수 있다.

- 청소년참여기구 기수별 모임 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 출신 선배들의 기수별 모임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문회 형식으로 본회의 전에 선배기수들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갖도록 한다.

- 청소년참여기구 선배를 컨설턴트로 활용

청소년참여기구 출신 선배들이 사회로 진출하면 선배들이 진출한 각각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분야로 진출하면 청소년참여기구 컨설턴트로 활용하고, 타 전문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은 각년도 정책의제나 이슈에 따라 초빙하여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 및 데이터베이스화	청소년참여기구 기수별 모임 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를 컨설턴트로 활용
2014년	청소년참여기구 출신자 관련 자료 취합	접촉가능 선배들을 통한 모임 활성화 방안 도출 및 계획수립	컨설턴트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2015년	청소년참여기구별, 지역별, 활동연도별 인력풀 구성	청소년참여기구별, 지역별, 활동연도별 대표자모임 개최	컨설턴트 기초 필요자원 파악 및 대상자 명부 작성
2016년	인력풀 구성	기수별 모임 지원	컨설턴트 모집, 선발 및 연수
2017년	인력풀 구성	기수별 모임 지원	컨설턴트로 활용
2018년	인력풀 구성	기술별 모임 지원	컨설턴트로 활용
비고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이 청소년참여지원센터에 역할 위임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이 청소년참여지원 센터에 역할 위임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이 청소년참여지원 센터에 역할 위임

(5)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우수사례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되쳐지는 참여기구에 전파하여 모든 청소년참여기구들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청소년참여기구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고, 우수 청소년참여기구와 지도자들에 대해 시상할 필요가 있다.

② 세부정책과제

-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공유기회 확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위원들이 참여하여 각 기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파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전국적인 차원의 대회 개최를 통하여 제공한다.

- 우수 청소년참여기구 및 우수 지도자에 대한 시상

우수 청소년참여기구와 우수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선발 시상하고, 인센티브로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공유기회 확대	우수 청소년참여기구 및 우수 지도자에 대한 시상
2014년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2015년	종합 워크숍(세미나,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2016년	종합 워크숍(세미나,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2017년	종합 워크숍(세미나,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2018년	종합 워크숍(세미나, 대회 등) 개최 및 시상	
비고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기구 참여 권장 ※ 예산(안): 1박 2일, 국립시설 활용으로 1억 정도 소요	

3)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① 배경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 청소년참여를 강조한 이후 정부의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청소년참여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지만, 아직까지 청소년참여기구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정책전문가, 현장전문가, 학자, 청소년 등의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하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연도별 발전계획과 예산운용 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2014년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2015년	연구용역, TF 등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16년	시행
2017년	시행
2018년	시행(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관련 핵심내용 반영)
비고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2)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제도 정비

① 배경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본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각 법률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추진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부분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단위에서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의 강화나 관련 청소년참여기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세부정책과제

-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및 시행

시도 차원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인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조례의 예시이다.

표 VII-1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능)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기도 및 도내의 다른 기관·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2. 다른 시·도 및 도내 시·군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촉자격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10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및 시행

시군구 차원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조례이다.

표 VII-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조와 제5조의2에 따라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인권의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단,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상)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및 시행

지자체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다.

표 VII-3 서울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 례 명	내 용
서울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조례 제1124호)	제12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청소년시설의 수탁기관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강남구규칙 제630호)	제8조(시설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시설 이용 권역의 관계 공무원, 학교 교사, 지역주민 대표, 청소년 대표 ,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 이용자 및 관계자의 폭넓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청소년수련관이 아닌 청소년 시설의 경우는 시설운영위원회를 대신하여 특수 목적사업의 영역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조 례 명	내 용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시설의 중요한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협의 2. 청소년시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협의 3. 청소년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관한 협의 등 제9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회계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장은 정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⑤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제안 2. 청소년시설 및 운영위원회의 주요행사에 관한 협의 3. 청소년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관한 기획, 홍보, 진행 4. 지역 사회 청소년 문화발전의 선도적 역할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등 ⑦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⑨ 위탁운영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및 시행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 및 시행	청소년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및 시행
2014년	우수사례 검토 및 표준 조례(안)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검토 및 표준 조례(안)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검토 및 표준 조례(안) 개발 및 보급
2015년	권고 및 제정	권고 및 제정	권고 및 제정
2016년	시행	시행	시행
2017년	시행	시행	시행
2018년	시행	시행	시행
비고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3) 청소년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강화

① 배경

청소년전문가 및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의사소통 및 교류의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기구 간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하고 상호 중복되어 운영되어지는 곳도 있다. 청소년참여기구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혼선을 없애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 각각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의 역할이 법령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부처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정책참여기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령에 나타나있는 사항들이 각 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 등에 동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청소년참여기구 간 연계 및 교류 확대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연계는 인적연계와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인적연계는 청소년참여기구 대표성 확립에서 제시하였고, 공동사업의 추진을 통해 서로 연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이슈를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 간 연계 및 교류 확대
2014년	법률 검토를 통한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역할 및 기능, 운영방식 명확화	기초연구, 우수사례분석, 시범적용
2015년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명시된 법률로 개정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시도 단위 연계 및 교류 확대)
2016년	시행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시군구 단위 연계 및 교류 확대)
2017년	시행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2018년	시행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비고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4)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① 배경

청소년참여기구의 예산지원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각 조사에서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몇 년간 예산동결 또는 축소로 인하여 출범식, 예비회의, 본회의의 기간을 축소하거나 참가인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예산도 몇 년째 동결상태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자생적인 조직이 아닌 정부지원을 통한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라는 점에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보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청소년참여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참여기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들이 제시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하는 청소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위해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청소년참여예산제란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삶이나 생활과 관련한 청소년정책과 예산을 제시하면 중앙정부(청소년특별회의) 및 지자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그 사업을 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됨.

☞ 해외 사례

- 핀란드 헬싱키의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매년 3월, 수도 헬싱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 초중고 학생대표,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대표, 기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각 학급별 및 학교별로 개최되는 워크숍을 통해 미리 선정된 지역적 의제들을 시장과 함께 토론하고, 실현 가능한 의제를 택해 예산까지 확정
- 「필리핀 청소년의회(Sangguniang Kabataan)」: 청소년(15-19세)들이 지역에서 의회 대표자들을 직접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 사회 발전과 청소년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하며 지자체 예산의 10%는 지역 청소년 문제해결과 교육 등에 배분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2014년	계획수립 및 사업 분석	계획수립
2015년	예산확대	관련 교육 및 연수 실시
2016년	예산확대	시범실시
2017년	예산확대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018년	예산확대	전면 확대
비고	※ 예산(안): 청소년특별회의 실질 필요예산 5억으로 증대(전체 인원 출범식, 예비회의, 본회의 3개 핵심 대회 참석 및 의제 연구 활동비 등 사무국예산 1억 6천만 원 증액, 지역활동 지원비 17개 시도 2,000만원씩 증액 3억 4천만 원), 청참위, 청운위 등은 늘어나는 수에 비례한 예산 증대	※ 예산(안): 각 지자체별 자체예산으로 추진 / 중앙단위 교육 및 연수비용 2,000만 원

(5)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① 배경

청소년참여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은 홍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제시하여 청소년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참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예산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② 세부정책과제

- 청소년참여 효과검증을 통한 정당성 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참여 효과검증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및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청소년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평가검증체계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평가검증체계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지원기구에서 평가 시기와 평가 지침 및 방법이 담긴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전문가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평가나 시설평가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강화할 수도 있다.

③ 중장기 로드맵

세부정책과제	청소년참여 효과검증을 통한 정당성 확보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평가검증체계 확립
2014년	계획수립	계획수립
2015년	기초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매뉴얼 개발 및 시범실시
2016년	지자체 평가, 시설 평가와 연동	전면실시
2017년	실시	전면실시
2018년	실시	전면실시
비고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등 활용	※ 예산(안): 예산 필요내역 없음, 청소년정책평가분석센터 등 활용

제 8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제언

제 8 장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이론적 조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청소년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분석과 함께 국외 청소년참여기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참여와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조사와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들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조망 결과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유, 영향력을 통한 변화 도모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으며, 청소년특별회의는 시도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구성되며 범부처에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3년 현재 244개 지자체 중 19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0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참여기구들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 미비, 청소년위원들의 대표성 문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자문내용의 낮은 반영률, 안정적 운영전략의 부재, 안정적인 추진기구의 미비, 적은 예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미비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청소년참여를 장려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의 주요기능, 역사, 조직, 운영 및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UN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과 유럽 청소년포럼 및 유럽 청소년의회는 총괄하는 기구로서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참여가 높고, 전반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뉴질랜드위원회 역시 사회 서비스, 건강, 마오리 족 관련 등 각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백악관회의는 국가재정담당 책임자, 연방주지방정부 대표자, 청소년현장 전문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파키스탄 청소년의회는 국회와 유사한 구조로 활동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의 고위 정치지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이러한 각국 청소년참여기구의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청소년의회와 같이 청소년참여기구는 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뿐만 아니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축제의 장으로서 청소년특별회의 구성원들 간에도 특정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 청소년의회 졸업생의 경우와 같이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졸업생들을 발굴하여 매해 본회의의 안건을 제안하거나 자문을 함에 따라 졸업생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영국, 미국,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은 청소년참여기구의 구성원들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등과 같은 고위 정치지도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상징적 의미에서의 청소년참여가 아닌 청소년 개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와 같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참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참여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관심 및 지속적인 고민과 탐구의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고민을 통한 의제선정보다는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논의와 참여를 이끌어 내고, 이를 위해 임기, 조직 등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참여활동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저해요인을 파악하며,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 청소년 참여활동 저해요인,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청소년참여기구 참여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도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정책 참여활동과 정치적 참여활동 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청소년들은 문화적 참여활동, 경제적 활동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이 충분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지원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 참여활동 후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참여활동이후 자신에게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시간 부족,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에 있어 성인이 의사결정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따라가는 형태 또는 성인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참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계, 현장전문가 및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필요성과 의의로 보았으며, 청소년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둘째,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청소년참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는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이 부족한 것과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 부처(교육부 등)와 연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의 파트너십이 부족하고,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로는 학업 병행으로 인해 참여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로 꼽았으며,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셋째,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을 청소년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나누어 각각 알아보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특별회의가 다소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는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역시 청소년특별회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각각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들은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향으로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범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를 제안하였고,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가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서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의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에서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4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홍보 및 게시판 공고 등의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참석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과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참여 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활동 후 성취기대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하며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참여기구별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구별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셋째, 참여기간은 평균 16.33개월이었으며, 1회 평균 4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진행했으며, 1년간 평균 13회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하는 활동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반영 활동과 청소년행사 기획 및 운영활동 등이었다.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행정기관과 부모의 지원은 보통수준이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활동 후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 공부시간의 부족에 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 부족, 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참여기구 활동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의견반영 미비 등이 있었고,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은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한계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의 측면에서는 학업 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고,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며,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지지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참여기구의 높은 참여도와 성취기대수준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리더십능력수준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 참여활동이 청소년들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정책기구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의 실질적 정책반영도 제고, 청소년참여기구 내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등 5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를 추구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하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 온 청소년참여기구들의 유사, 중복성을

뛰어넘어 각 청소년참여기구 설립의 근본취지에 맞게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참여기구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감에 따라 청소년참여기구와 실제 청소년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정부조직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들은 청소년참여기구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참여기구 의견이 공식적 통로를 통해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의견이 결집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구조를 전환하여 청소년참여기구 내에서 상향식 및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영역으로 청소년참여기구 사회적 기반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참여기구의 사회적 기반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청소년참여기구의 대표성 강화, 청소년참여기구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청소년참여 및 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강화, 가정·학교·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 국제기구 등 외국 청소년참여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참여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지도자의 역량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조직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선배조직 결성 및 연계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참여기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청소년참여기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청소년참여기구 관련 법·제도 정비,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강화, 청소년참여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 큰 방향의 전략, 정책과제,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향후 후속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각 정책과제별 체계적인 세부추진과제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후속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각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범위의 확정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 각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등의 정책추진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 내 문 헌 】

- 강영배(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직업의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04-R23).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 외(2001).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 -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준(2004).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사회참여실태와 지원방안(연구보고 04-R04).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인(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 김영지 외(2006). 지역 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지·전성민(2002).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주 외(1999). 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운동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희성(2004).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 임파워먼트 형성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04-R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화성(2009). 청소년참여기구 활동경험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종수·고성혜·전명기(2001). 청소년 보호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문성호(2006). 정책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확대방안의 모색. **청소년학연구**, 13(6), 201-219.
- 문화관광부(1998).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 서울: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08).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서울: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2013). 청소년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연구 -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구성·운영을 중심으로

- 서정아·김지경(2012).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수시과제) 12-R25.
- 손의숙(2006). 청소년 정책참여 수준과 세대 간 차이 비교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4(2), 37-55.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3년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활성화 추진 계획.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3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침.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내부자료**. 2013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현황 보고.
- 오해섭·장근영(2007).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동엽·문성호(2010). **청소년참여 경험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01-123.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4호, 5-29.
- 이민희 외(2005). **청소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희·이혜원·최경옥(2009).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1(3), 129-148.
- 임성호 역(1998).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의 세계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 청소년연구자료집 1998-7.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전명기(2000).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소년. 청소년문화 그 이해와 바로 세우기**. 전남 영광: 영산원불교대학교 출판부.
- 전명기(2003). **청소년정책의 세계적 동향과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 이광호 외. **청소년정책론**(서울: 교육과학사).
- 조선화(2003). 지역 사회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실태 분석 및 참여증진방안 탐색연구 : 서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0(4), 55-91.
- 조혜영·최창욱(2008). 참여활동의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1), 111-140.
- 진은설·임영식(2009). 청소년활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211-234.
- 천정웅(2011). **청소년참여의 유형화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7-47.
- 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 참여의 현황, 문제점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2006).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수련원.
- 최원기·전명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방안 연구**(연구보고 03-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창욱(2007). 청소년참여기구 소속청소년의 청소년리더십 영향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3), 245-266.
- 최창욱·김승경(2010).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신윤희(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 최창욱·조혜영(200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 방안 연구**(연구보고 06-R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조혜영(2007). 청소년 정책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청소년 정책참여 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203-227.
- 최충욱(1991). 세계문화체제이론과 한국 중등교육 패창 1955-1986. **한국사회학회**, 12, 256-263.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3). 2013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미간행자료.
- 함병수 외(1991). 청소년 전용시설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4, 42-67.

【 외 국 문 헌 】

- Checkoway, B.(1999). *Adult ad allies*. A Kellogg Foundation Publication. Online: <http://www.wkkf.org>.
- Council of Europe(1993). *European 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Municipal and Regional Life*. Online: <http://www.coe.fr>.
- Hart, R. A.(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are*. New York: UNICEF.

-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1999). *Youth Participation*. Online: <http://www.iyfnet.org/programs/yoythpart.html>.
- Morris, J. C.(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Iowa, USA.
- Rog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s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evers, B. S. & Dormody, T. J.(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3(4).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html>.
- Seevers, B. S. & Dormody, T. J. & Clason, D.L.(1995). Developing a scale to rese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28-34.
- Treseder, P.(1997). *Empower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Training Manual. London: Save the Children Fund.
- UN(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of 20 November 1989.
- UN(1999). *Youth Participation Manual*. New York: United Nations.
- UN(2002). *Country Profiles on the Situation of Youth*(<http://www.un.org/esa/socdev/unyin/wywatch/country.htm>. 2002. 9. 26 검색).
- UN(2007).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s A/RES/50/81 and A/RES/62/126 on 14 December 1996 and 18 December 2007.
- UN Economy & Social Affairs(2010).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New York: United Nations) 참조.
- UNEP(1992). *Agenda 21: Repro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nnex II (Rio de Janeiro, 3-14 June 1992).
- UNICEF(2002). *Introdu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unicef.org/crc/crc.htm>. 2002. 12. 10. 검색)
- Winter, M.(1997). *Children as Fellow Citizens: participation and commitment*. Oxford: Radcliffe Medical Press.

【 인터넷 검색자료 】 24)

국가법령정보포털(<http://www.law.go.kr/>)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http://www.echoyouth.or.kr/>)
 유엔경제사회부 사회정책·개발국(청소년과) <http://social.un.org/index/>
 유럽 청소년포럼 http://www.coe.int/t/dg4/youth/Partners/European_youth_forum_en.asp
 유럽 청소년의회 <http://www.eypej.org/>
 *영국위원회 : <http://eypuk.co.uk/>
 *독일위원회 : <http://en.eyp.de/>
 *스위스위원회 : <http://eyp.ch/>
 *스웨덴위원회 : <http://eup.se/>
 *터키위원회 : <http://eypturkey.org/>
 *우크라이나위원회 : <http://www.eyp-ua.org/en/>
 영국 청소년위원회 <http://www.byc.org.uk/>
 영국 청소년의회 <http://www.ukyouthparliament.org.uk/>
 스코틀랜드 청소년의회 <http://www.syp.org.uk/>
 스웨덴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www.ungdomsstyrelsen.se/english>
 호주 청소년교류연합 <http://www.ayac.org.au/index.php>
 호주 청소년포럼 <http://www.youth.gov.au/sites/youth/ayf/>
 뉴질랜드 청소년의회 <http://www.myd.govt.nz/young-people/youth-parliament/>
 청소년백악관회의 <http://www.cwla.org/advocacy/whitehouseconfhistory.pdf>
 파키스탄 청소년의회 <http://www.youthparliament.pk/>
 세계청소년의회 <http://worldyouthparliament.org/about-us/>
 국제청소년위원회 <http://internationalyouthcouncil.com/page/vision-mission>

24) 인터넷 검색기간은 국가법령정보포털과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2013년 9월 24~26일 검색, 기타 외국자료들은 8월 20~29일에 검색함.

.....

부록

부 록

1. 일반청소년대상 설문조사지(통합조사)
2. 전문가의견 조사지 1차
3. 전문가의견 조사지 2차
4.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설문 조사지

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2013 청소년참여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으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김윤희 연구원 (02)2188-8807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박선경 대리/염숙희 팀장 (02)3014-101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매우 그렇다’이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에 ‘매우 그렇다’고 생각해서 ‘⑤’에 ○를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 참여

문 1. 학생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청소년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참여기구	모른다	들어본 적 있다	잘 알지만 참여한 적 없다	참여한 적 있다
1)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④
2) 청소년참여(차세대, 자치, 구정참여)위원회	①	②	③	④
3)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④

문 2. 위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문 3. 위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 ②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반영될 것이다
- ⑤ 아주 잘 반영될 것이다

문 4. 학생은 다음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였나요? 또한 각 참여활동별 참여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참여도	참여기간
1) 정책 참여활동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 청소년시설·단체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활동, 국제기구 위원회 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수준으로 참여 ④ 많이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참여함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2) 교육현장 참여활동 : 학교 동아리 활동, 학생회 자치활동, 학교 운영 과정 등에 참여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수준으로 참여 ④ 많이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참여함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3) 사회적 참여활동 : 자원봉사활동, NGO활동, 자치기구 활동, 국제교류활동 참여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수준으로 참여 ④ 많이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참여함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4) 정치적 참여활동 :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 정치집회 참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정치관련 의견 투고, 정당 활동, 1인 시위활동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수준으로 참여 ④ 많이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참여함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5) 문화적 참여활동 : 문화행사의 기획, 공연 등 참여, 각종 문화행사 관람, 문화축제 모니터링 활동, 지역축제 기획참여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수준으로 참여 ④ 많이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참여함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6) 경제적 참여활동 : 아르바이트,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로교육, 경제교육 참여 등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참여하지 않는 편임 ③ 보통수준으로 참여 ④ 많이 참여하는 편임 ⑤ 매우 많이 참여함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6개월 미만 ③ 6개월~1년 미만 ④ 1년~2년 미만 ⑤ 2년 이상

1) ~ 6) 이 모두 ①인 경우 ⇒ 문 12로 이동

1) ~ 6) 중 한 가지라도 ② ~ ⑤인 경우 ⇒ 문 5로 이동

문 5. 학생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한다
- ⑤ 매우 만족한다

문 6.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⑤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⑦ 기타 ()

문 7. 학생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까?

- ①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 ②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기대하였다
- ⑤ 아주 기대가 컸다

문 8. 학생은 위 청소년 참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 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문 9.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고 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 ②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
- ③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 ④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 ⑤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⑥ 기타()

문 10.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고 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부정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 ② 공부시간이 부족해졌다
- ③ 강요된 활동으로 인해 불쾌감이 생겼다
- ④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생겼다
- ⑤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⑥ 기타()

문 11. 학생의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교사, 청소년지도자, 부모의 지원(지지, 격려, 제도적인 지원 등)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매우 충분
1) <u>선생님(교사)</u> 의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u>청소년지도자</u> 의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u>부모 및 가족</u> 의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다음 청소년 참여활동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정책 참여활동 ② 교육환경 참여활동 ③ 사회적 참여활동
④ 정치적 참여활동 ⑤ 문화적 참여활동 ⑥ 경제적 참여활동

문 13.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가요? 가장 큰 이유에 0로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 ②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 ③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 ④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 ⑤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 ⑥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 ⑦ 기타 ()

문 14. UN 등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수준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단계: 어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청소년에게 지시한다
- ② 2단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한 후 의사결정을 한다
- ③ 3단계: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 ④ 4단계: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어른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 ⑤ 5단계: 모든 의사결정을 청소년들이 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지원한다

문 15. 다음의 청소년 참여활동 어려움 중에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부족하다
- ②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어떻게 참여활동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 ④ 하고 싶은 참여활동이 부족하다
- ⑤ 부모님이나 가족이 반대한다
- ⑥ 학교나 선생님이 반대한다
- ⑦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 ⑧ 기타()

문 16. 앞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② 학교성적이 우선시되는 입시제도의 개선
- ③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④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 ⑤ 학교나 선생님의 협조
- ⑥ 부모님의 협조
- ⑦ 기타()

배경 문항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 분석에 꼭 필요한 항목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O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O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6.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리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제1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견조사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3년 고유연구과제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학계, 행정계,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 기구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오니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지의 답변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차 질문지는 2006년 이미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관식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질문지는 1차 질문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도를 체크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연구 일정이 촉박하오니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 02-2188-8807)

성명	소속기관/직위			
현주소			주민 번호	
입금통장	계좌번호(은행명) :			

I. 다음은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의견이나 기존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2006년 조사의 청소년참여 필요성과 의의

- ◇ 청소년의 역량 인정 및 함양 기회 제공
- ◇ 청소년의 인권신장
- ◇ 청소년 성장의 동력 역할 인정
- ◇ 청소년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 ◇ 청소년정책의 신뢰감 및 순응성 확보
- ◇ 성인과 청소년의 수평적·상호적 관계와 균형 유지
- ◇ 개방적·쌍방향적인 새로운 정치참여문화 형성
- ◇ 청소년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문제해결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

2. 청소년참여의 형태

2006년 조사의 청소년참여의 형태

- ◇ 명목적·형식적 수준의 참여로 실질적인 반영 미비
- ◇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형성 및 권한이양(empowerment)의 거부감 상존
- ◇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 ◇ 성격에 맞는 청소년참여 형태 또는 단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형성이 어렵고, 지역별·시설별 편차가 큼
- ◇ 참여의 통로가 일부 청소년으로 제한됨
- ◇ 청소년참여의 수준 및 범위,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

3. 청소년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3-1. 참여기구 운영 측면

2006년 조사의 참여기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 지도자의 전문적 자질 부족 및 업무 과중 ◇ 청소년의 특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못함 ◇ 청소년에 대한 권한·책임감부여 부족 ◇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 ◇ 각 참여기구 조직간 차별화 미흡 ◇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 정부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시각이 '자체활동'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3-2.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

2006년 조사의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의 한계와 문제점	
◇ 의사진행 및 결정과정의 미숙, 자발적·주체적 활동의 어려움 ◇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가까움 ◇ 성인과 함께 할 경우 청소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음 ◇ 지도자의 개입과 조정에 대한 거부감이 큼 ◇ 소수 주도 청소년에 의한 진행 ◇ 의사결정의 공개화 및 정보공유화 부족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3-3.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

2006년 조사의 참여청소년 자체 문제	
◇ 참여 개념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등의 올바른 인식 부족 ◇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 문제 발생 가능 ◇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낮은 참여율, 비효율성, 심각한 이탈 등의 문제 ◇ 학업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및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 ◇ 청소년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 또는 새로운 활동 방안의 모색 미흡 ◇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 발생 ◇ 한 명의 청소년이 다수의 참여기구에 중복 참여로 참여의 저변 확대 실패 ◇ 참여 연령이 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다양한 연령대 분포가 아님	

추가 의견 및 수정 의견	◇ ◇ ◇
--------------------------	---

3-4.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지원 측면

2006년 조사의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 청소년참여의 부정적인 인식 상존 ◇ 청소년보호 차원의 관념 상존 ◇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협조 및 지원 어려움 ◇ 청소년참여와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측면의 연결고리가 없음	

추가 의견 및 수정 의견	◇ ◇ ◇
--------------------------	---

Ⅱ. 다음은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의견이나 기존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2006년 조사의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 부합정도	
◇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불참 ◇ 매년 바뀌는 구성원으로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큼 ◇ 특별회의 및 운영 사무국의 법적근거 마련 시급 ◇ 중앙 및 지역 운영주체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방안 공유 미비 ◇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 중앙집권식 의사결정구조의 한계로 지역별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 형식적,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만연 ◇ 지역 청소년의 의견수렴과정 미비 ◇ 참여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부여 미흡 ◇ 의제가 당해 연도 최고의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 ◇ 짧은 기간으로 실제 의제연구나 지역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음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2.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2006년 조사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 다수의 비자발적 구성원으로 인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참여 ◇ 역할 및 기능이 명확하지 않음 ◇ 참여기구 운영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 부족 ◇ 명확한 법적근거 없음 ◇ 담당자의 청소년 및 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담 인력 부족 ◇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흡 ◇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어려움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2006년 조사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	
◇ 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실제적인 시설운영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보장 및 안정적 지원 부족	
◇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명목적 참여로 변질	
◇ 청소년과 지도자의 적극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부족	
◇ 위원회간 긴밀한 네트워크와 공동논의 등의 부족	
◇ 지역별·시설별 활동 및 지식수준의 편차가 심함	
◇ 운영예산 부족	

추가 의견 및 수정 의견	◇
	◇
	◇

Ⅲ. 다음은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 의견이나 기존 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2006년 조사의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향	
◇ 다양한 홍보강화 및 유기적 협조·지원체계 구축으로 사회 공감대 형성	
◇ 전담지원기구 설치·운영	
◇ 연임비율을 높이고, 지역회의는 인구비례로, 대표청소년은 정원제로 구성	
◇ 체계적 평가시스템 도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할 필요	
◇ 적극적인 지역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하의상달식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 지역회의 청소년 및 담당자의 충분한 교육·연수	
◇ 청소년, 지도자,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이에 따른 권한 및 책임부여	
◇ 특별회의 구성 방법 및 기타 참여기구와의 연계방안 모색	
◇ 의제선정의 범위, 방법 등의 재검토	

추가 의견 및 수정 의견	◇
	◇
	◇

2.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2006년 조사의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	
◇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확대 실시·배치 ◇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명확한 역할제시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와 수렴된 의견의 정책반영 ◇ 관련법령 및 제도적 기반마련 ◇ 지역 사회와 학교와의 연계성 강화 ◇ 우수 참여기구 사례 홍보와 기본 매뉴얼 개발·보급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2006년 조사의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방향	
◇ 청소년 및 지도자의 충분한 교육과 훈련 ◇ 운영 미비 운영위원회의 컨설팅 ◇ 필요성·효과성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제시 ◇ 시설 관리자로부터의 안정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유인책 마련 ◇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평가 정례화 ◇ 활동 영역 확대로 지속적 참여를 위한 지역 사회 연계 시스템구축 ◇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상설화된 자문역할 방법이 요구됨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Ⅳ. 다음은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추가의견이나 기존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조사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 ◇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
- ◇ 참여청소년, 운영자, 지도자, 담당자 등의 지속적 교육 및 연수
- ◇ 대표성 확보와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및 참여청소년 선발과정의 개선
- ◇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
- ◇ 청소년참여와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한 참여경로 상설화
- ◇ 참여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 ◇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
- ◇ 청소년참여의 활동자문기관 상설화 및 컨설팅강화
- ◇ 참여 평가체제 강화 및 피드백 장치 마련

추가의견 및
수정의견

- ◇
- ◇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제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전문가의견조사에 응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들이 아주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풍부하게 답변하여 주시어 연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1차 조사에 이어 1차 조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2차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지의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질문지는 1차 질문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도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연구 일정이 촉박하오니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최창욱 박사, 02-2188-8807)

질문지 작성 및 회신 방법

- 질문지작성 : 각 영역별 해당란에 V표시, 추가의견 있을 경우 해당란에 간략히 작성
- 마 감 날 짜 : 2013년 9월 30일(월)까지
- 회 신 : ccwook@nypi.re.kr (최창욱 이메일)

I. 다음은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성 부합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

	청소년참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청소년 다양한 역량함양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인권신장 도모	①	②	③	④	⑤
◇	사회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역할 인정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책임감 및 의무인식 함양	①	②	③	④	⑤
◇	성인과 청소년의 수평적·상호적 관계 및 견제와 균형 유지	①	②	③	④	⑤
◇	개방적·쌍방향적인 새로운 참여문화 형성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및 지역 사회 문제해결	①	②	③	④	⑤
◇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문화 수용 기회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가능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기능	①	②	③	④	⑤
◇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구현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2. 현재 청소년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현재 청소년참여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명목적·형식적 수준의 참여로 실질적 반영 매우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성인과 청소년의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 형성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정당성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 특성별 참여형태나 단계 제시 못함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형성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	참여의 통로가 일부 청소년으로 제한됨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의 개념, 수준 및 범위, 역할이 명확치 않음	①	②	③	④	⑤
◇	지역별·시설별 청소년참여 수준의 편차가 큼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해도가 다름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 보다 청소년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둠	①	②	③	④	⑤
◇	가정, 학교, 사회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동아리로 인식되는 경향	①	②	③	④	⑤
◇	실무 청소년지도자의 이해부족과 업무 후순위로 인식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에게 참여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 청소년참여의 한계와 문제점

3-1. 참여기구 운영 측면

	참여기구 운영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청소년지도자의 참여기구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지도자의 업무과중으로 참여기구 지원미흡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의 특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에 대한 권한·책임감부여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 지원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	각 참여기구 간 차별화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에 대한 체계화된 평가체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지역별 특성 고려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에 대한 정부, 기관, 시설의 인식부족	①	②	③	④	⑤
◇	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모델 지원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 담당 지도자는 대체로 신입직원이 담당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형성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타부처(교육부 등)와 연계 미비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2.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

	참여기구 내 의사결정구조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청소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	①	②	③	④	⑤
◇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에 가까움	①	②	③	④	⑤
◇	의사결정과정에 성인과의 파트너십 부족(역할구분 등)	①	②	③	④	⑤
◇	소수 주도 청소년에 의한 진행	①	②	③	④	⑤
◇	의사결정의 공개화 및 정보공유화 필요	①	②	③	④	⑤
◇	대표성 부족으로 참여기구 의사결정내용 반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	의사결정 관련 각종 회의자료 등의 관리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제선정과 논의 과정 부족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청소년연령으로 의사결정의 어려움 노정	①	②	③	④	⑤
◇	체계적인 참여기구 운영모델 및 운영방법 제시 미흡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3. 참여청소년 자체의 문제 측면

	참여청소년 자체 문제 측면의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참여개념 및 민주적의사결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	비자발적 참여로 인한 낮은 참여율과 비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	학업 병행으로 인한 참여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	참여를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①	②	③	④	⑤
◇	참여청소년의 적극적인 태도 및 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	①	②	③	④	⑤
◇	한 명의 청소년이 다수의 참여기구에 중복 참여	①	②	③	④	⑤
◇	연령문제1- 고등학생 및 대학생 위주의 참여 양상	①	②	③	④	⑤
◇	연령문제2- 다양한 연령대로 소통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	소외계층 청소년의 참여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청소년 선발시 지연, 혈연, 학연문제 발생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4. 가정, 학교, 지역 사회의 지원 측면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측면의 한계와 문제점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성인들에게는 청소년보호 차원의 관념 상존	①	②	③	④	⑤
◇	인식부족으로 가정, 학교, 기관의 협조 및 지원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포함)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우수사례와 성인과의 협력모델 제시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참여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참여기구 청소년에 대한 저변확대 미흡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II. 다음은 청소년참여기구의 문제점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성 부합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문제점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범정부적 기구임에도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중앙 및 지역 운영주체의 안정적 확보 미비	①	②	③	④	⑤
◇	부처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	형식적이고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다수 차지	①	②	③	④	⑤
◇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과정 미약	①	②	③	④	⑤
◇	참여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부여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정책의제의 반복 등 합리적인 의제선정 과정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정책의제의 단순화 및 전국적 공론화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짧은 임기로 중앙 및 지역 활동기간이 충분치 않음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홍보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확보 미비	①	②	③	④	⑤
◇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및 차별화 부족	①	②	③	④	⑤
◇	특별회의와 여성가족부 참여위원회 간 차별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2.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청참위 위원들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참여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의 역할 및 기능이 명확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 운영 행정기관의 적극적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 구성원의 시군구 대표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	담당자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이해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및 차별화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시도 청참위와 시군구 청참위의 연계 전무	①	②	③	④	⑤
◇	한 기관(시설)에서 청참위와 청운위 함께 운영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에 대한 홍보 미비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의 기관 및 시설 위탁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	지역별 청참위 활동에 대한 편차 심함	①	②	③	④	⑤
◇	시군구청장과의 소통의 자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청운위)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 동의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	위원들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실제적인 시설운영참여 권한보장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과 지도자의 청운위 역할에 대한 인식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지역별·시설별 활동 및 지식수준의 편차가 심함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 운영을 위한 안정적 행정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 시설운영대표자의 의지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에 대한 홍보 미비	①	②	③	④	⑤
◇	다양한 청운위 운영종류 세분화 및 체계화 미비	①	②	③	④	⑤
◇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및 차별화 부족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시설내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인원구성 미비	①	②	③	④	⑤
◇	한 기관(시설)에서 청참위와 청운위 함께 운영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 성과평가가 양적평가에 치우치는 문제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Ⅲ. 다음은 청소년참여기구의 발전방향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의 발전방향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	다양한 홍보강화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①	②	③	④	⑤
◇	중앙 및 지방 전담지원기구(사무국) 강화	①	②	③	④	⑤
◇	구성원의 대표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	정책반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시스템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참여 청소년 및 담당자의 교육·연수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 정부의 명확한 역할분담	①	②	③	④	⑤
◇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정책의제의 단순화 및 전국적 공론화	①	②	③	④	⑤
◇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우수모델 제시	①	②	③	④	⑤
◇	특별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①	②	③	④	⑤
◇	법정부적 성격에 맞게 대통령 등 책임자의 참여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	특별회의 위원의 임기 연장(1년→2년)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	--

2.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청참위)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발전방향	중 요 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 확대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과 지도자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확보 및 정책반영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	지역 사회와 학교, 관련기관과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우수 참여기구 사례 발굴 및 활동매뉴얼 개발·보급	①	②	③	④	⑤
◇	지역별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①	②	③	④	⑤
◇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의 시군구 행정기관 직접 운영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에 대한 지역 사회 홍보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참위 주체 지역 청소년현황조사 정례화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발전방향	중 요 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청운위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에 대한 현장 컨설팅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및 지도자의 청운위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정적 지지 확보	①	②	③	④	⑤
◇	정부지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주기적 평가 실시	①	②	③	④	⑤
◇	지속적 참여를 위한 지역 사회 연계체제 구축	①	②	③	④	⑤
◇	담당 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속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	타 참여기구와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우수 청운위 운영사례 발굴 및 보급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의 대표성 확보(시설이용청소년의 대표 등)	①	②	③	④	⑤
◇	청운위 정기회의에 시설운영대표자 참여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IV. 다음은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소년분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중 요 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	①	②	③	④	⑤
◇	참여청소년, 운영자, 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강화	①	②	③	④	⑤
◇	대표성 확보와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선발과정 개선	①	②	③	④	⑤
◇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와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의 활동자문기관 상설화 및 컨설팅강화	①	②	③	④	⑤
◇	참여 평가체제 강화 및 피드백 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예산제 실시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담당자 및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참여기구 동문회 결성 및 공식적 활동 유도	①	②	③	④	⑤

추 가 의 견	
------------------	--

감 사 합 니 다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에 대한 설문지

청소년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으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여러분의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참여현황과 청소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소년정책참여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담당: 최창욱 박사(02-2188-8807, ccwook@nypi.re.kr)

<http://www.nypi.re.kr>

I. 다음은 ‘청소년참여기구 참여현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이후의 문항들은 그 참여기구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청소년특별회의(시도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위원회)
②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③ 청소년운영위원회

2. 귀하는 청소년참여기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 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귀하는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참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⑤ 홍보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⑦ 기타 ()

4. 청소년 참여활동에 무엇 때문에 참여하였나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위해
- ②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 ③ 삶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 ④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 ⑤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 ⑥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 ⑦ 기타 ()

5. 귀하는 청소년참여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까?

- ①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②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기대하였다 ⑤ 아주 기대가 컸다

() 년 () 개월

7. (최근 1년간)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나 활동에 **‘참여한 횟수’**는? 약 () 회

8. 1회 평균 청소년참여기구의 회의나 **‘활동 시간’**은? 평균 () 시간

9. 귀하가 참여하고 있는(하였던) 청소년참여기구의 위원 구성은?(있는대로 표시)

① 학교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청소년을 일정한 비율로 구성

②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들 중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

③ 특정분야에 특기나 재능이 있는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

④ 기타 ()

10. 청소년참여기구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활동’**은?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212

11.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자, 부모의 지원은 어땠습니까?

	내 용	매우 부족 하다	부족 하다	보통 이다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1	행정기관(참여기구 소속기관)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지도자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 또는 세대주의 참여활동 지원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참여활동 결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세요.

12. UN 등에서는 청소년 참여의 수준을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단계: 어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청소년에게 지시한다
- ② 2단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한 후 의사결정을 한다
- ③ 3단계: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 ④ 4단계: 청소년들이 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어른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한다
- ⑤ 5단계: 모든 의사결정을 청소년들이 하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지원한다

13. 앞으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 ①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② 학교성적이 우선시되는 입시제도의 개선
- ③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④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활동정보 제공
- ⑤ 학교나 선생님의 협조
- ⑥ 부모님의 협조
- ⑦ 기타()

14.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만족함 ⑤ 아주 만족함

15.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아주 필요함

16.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고 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
 ② 공동체의식이 확대되었다
 ③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었다
 ④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⑤ 기타()

17. 청소년 참여활동을 하고 난 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부정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② 공부시간이 부족해졌다
 ③ 강요된 활동으로 인해 불쾌감이 생겼다
 ④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생겼다
 ⑤ 기타()

18. 다음의 청소년 참여활동의 ‘어려운 점’중에 가장 공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부족하다
 ②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어떻게 참여활동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④ 하고 싶은 참여활동이 부족하다
 ⑤ 부모님이나 가족이 반대한다
 ⑥ 학교나 선생님이 반대한다
 ⑦ 참여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⑧ 기타()

Ⅲ. 다음은 ‘**청소년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 표 해주세요.

19.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참여기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지도자의 전문적 자질 부족 및 업무 과중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의 특성, 경험 등을 고려하지 못함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에 대한 권한·책임감부여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참여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도자, 예산 등의 시스템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각 참여기구 조직간 차별화 미흡	①	②	③	④	⑤
6	체계화된 평가체계 및 장기적 로드맵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보임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①	②	③	④	⑤

20. '참여청소년 자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번호	참여청소년 자체 문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참여 개념 이해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참여청소년의 특권의식과 집단 이기주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3	낮은 참여율, 비효율성 등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4	학업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진학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스스로 지속적인 연구 또는 새로운 활동 방안의 모색 미흡	①	②	③	④	⑤
7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다수의 참여기구 중복 참여 문제	①	②	③	④	⑤
9	참여 연령이 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다양한 연령대 분포가 아님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에 ㄴ표 해주세요.

21. 다음 각각의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 호	청소년참여 활성화 방안	중 요 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1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홍보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참여청소년, 운영자, 지도자, 담당자 등의 지속적 교육 및 연수	①	②	③	④	⑤
3	대표성 확보와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및 참여청소년 선발과정의 개선	①	②	③	④	⑤
4	각 청소년참여기구의 기능, 역할, 체계정립과 운영의 전문화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참여와 학교, 부모,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6	참여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참여기구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강화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참여의 활동자문기관 상설화 및 컨설팅강화	①	②	③	④	⑤
9	참여 평가체제 강화 및 피드백 장치 마련	①	②	③	④	⑤

22. 청소년참여 및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V. 다음은 귀하의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ㄴ표 해주세요.

자신의 상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반이나 단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매사에 재치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여러분의 '자아 존중감'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ㄴ표 해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가끔씩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항상 실패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개인적 사항' 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ㄴ표 해주세요.

-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귀하의 연령은? 만 ()세
- 귀하의 가정형편은?
 ① 아주 못산다 ② 못산다 ③ 보통 ④ 잘 산다 ⑤ 아주 잘 산다
- 귀하는 현재?
 ① 초등학생 ② 중학생 ③ 고등학생 ④ 대학생 ⑤ 학교 안 다님

5. 귀하의 학교성적은?(학생이 아닌 경우 과거 학교 다녔을 때의 성적)

- ① 하위권 ② 중·하위권 ③ 중위권 ④ 중·상위권 ⑤ 상위권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on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to suggest medium-and long-term road map. In this regard, the study has suggested theoretical prospects, cas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specialist opinion survey,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general youth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directions and medium and long-term road map are suggested.

Concerning international trend on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international societies are shown to recognize youth as a companion for social evolution, due to the fact that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is needed in various sections as a part of the basis of social evolution.

By analyzing international case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vitalizing discussion between the members of the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policy reflection of results deducted from discussion, budget support from the nation and foundation, making the best use of senior groups were the main issues which were suggestive.

The results of the nationwide survey target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 both low recognitio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and low participation rate of the committees. Especially, policy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political engagement level were revealed to be low. On the other hand, youths rather tend to prefer cultural and economical participation activities. Meanwhile, support from teacher, juvenile instructor, and parents on participation activities were low. Even after participation activities, most of the youths answered to have

only little change to themselves. Lack of time and information were considered as main difficulties of youth's participation activity.

To invigorate youth's participation activity, improving social recognition on the youth's participation activity is required. On top of it, improving current system of entrance exam and offering various programs are also indispensable.

From the expert's opinion for invigorating youth participation activity, offering a variety of chances for them to develop as democratic citizen is reveal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most critical point in dispute were difference among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lack of long-term road map in the aspect of management.

Meanwhile, the functions and roles, system formulation and specialized management of the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were relatively regarded as important for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Results of the survey on members affiliated to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show that youths were actively participating in committee, particularly focusing on self-improvement and enhancement of youth's rights and interests. The average participation duration was 16.33 months, 4 hours and 30 minutes of conference participation per one session, and 13 sessions per month in average. Reflecting opinions of the youth policy, planning and operating events were the primary activities youth participate in. Support from administrative agency and parents were below the general level. They showed satisfaction on the role of juvenile leader.

Lack of time, information on the participating activities, awareness of activity method, and incomplete opinion reflection were indicated as drawbacks of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s. Adding to it, improving social understanding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organizing legal system regarding committees, and building support and linkage among school, parents, and community were essential for activating committees. Level of leadership was shown to be higher with the youth groups with active participation and higher expecting level of achievemen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following activation pla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First of all, five basic directions to activate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re set up as follows: enlarge youth's participation opportunities, establish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identity, form partnership between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nd youth's policy organization, enhance actual policy reflection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opinion, establish democratic and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Furthermore, three domains for activating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are suggested as follows: consolidate social basis, strengthen ability, build up propulsion system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Specifically, in the respect of consolidating social basi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five political subjects are suggested as follows: enhancing representativeness, expanding actual rights,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 reinforcing connection with home, school, and commun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committees overseas including organizations.

Concerning the issue of strengthening ability, five political subjects are proposed as well: strengthening ability of participating youth, enhancing ability of youth leader, reinforcing operation formation, building up mentor committee and strengthening connectivity, discovering and spreading outstanding cases.

Five political subjects are presented as follows regarding enhancing propulsion system: establishing and managing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al plan for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organizing related regulations and system, strengthening network between committees, strengthening budget support for operating committee, establishing systems for effectiveness verification and for evaluation.

Key Words :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 foreign cases of youth organization, activate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화·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한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와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이종원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분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 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직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자체번호 13-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서정아·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김형주·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이유진·한상철·추승연·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이창호·최금해·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황진구·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황진구·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초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김지연·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배상률·강영배·김정주·김혁진·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김경준·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오해섭·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경준·모상현·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이지혜·박형근·이수경·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김인숙·정병수·황소영·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김현철·김희진·김인아·김재근·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김영지·김희진·송인숙·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김영지·김현철·박정수·박지만·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Ⅰ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리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자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자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보고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2)503-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716-1 (93330)